

碩士學位論文

한·중 농산물 무역실태와
한국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業經濟學科

朴 美 善

2003年 12月

한·중 농산물 무역실태와
한국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姜 志 勇

朴 美 善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朴美善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12月

A Study on Status of Korean and Chinese
Agricultural Trade & Plans of Korean Agriculture

Mee-Sun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Ji-Yong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ang Kyung-Sun,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Kang Dong-Il,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Kang Ji-Yong,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ember 2003.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3
II. 한국 농산물 무역구조	4
1. 농산물 무역현황	4
2. 주요 품목별 무역구조	5
1) 수출구조	6
2) 수입구조	8
3.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	9
1)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9
2)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10
III.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12
1. 중국 농산물의 무역구조	12
1) 농산물 무역 현황	13
2) 주요 농산물 수출구조	15
3) 주요 농산물 수입구조	16

2. 중국 농업생산 현황	20
1) 지역별 생산현황	20
2) 농산물 분류별 생산현황	21
3. 중국 농산물의 유통실태	26
1)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혁	26
2) 유통환경의 변화와 유통 다원화	29
3) 농산물 유통구조 및 특성	30
4. 중국 농산물의 소비시장 분석	33
1)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 및 특성	33
2)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36
5.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농정의 변화전망	42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무역자유화 이행계획 내역	42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의 변화 및 전망	47
IV.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52
1.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구조	53
1) 주요 부류별 수입구조	53
2) 주요 품목별 수입구조	54
2.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분석	57
1) 주요 부류별 수출구조	58
2) 주요 품목별 수출구조	59
3) 한국 농산물의 중국내 유통·소비실태 분석	61

V.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 대응방안	64
1. 중국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무역 전망	64
2.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과 수출가능성 분석	66
1)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분석	66
2) 수출 가능성 분석	67
3. 한국의 대응방안	73
1)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73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76
VI. 요약 및 결론	82
참 고 문 헌	84
부 표	85



表 目 次

<표Ⅱ-1> 한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5
<표Ⅱ-2> 한국 농산물 품목별 수출구조	7
<표Ⅱ-3> 한국 농산물 품목별 수입구조	9
<표Ⅱ-4>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10
<표Ⅱ-5>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11
<표Ⅲ-1> 중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13
<표Ⅲ-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15
<표Ⅲ-3> 중국 주요 농산물 국가별 수출 비중	16
<표Ⅲ-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17
<표Ⅲ-5> 중국 주요 농산물 국가별 수입 비중	18
<표Ⅲ-6> 농산물 주요 지역별 수입현황(2000)	19
<표Ⅲ-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22
<표Ⅲ-8> 중국의 주요 과일류 생산량 추이	23
<표Ⅲ-9>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25
<표Ⅲ-10> 소비계층 분류	34
<표Ⅲ-11> 2005~2030년 주요 농산물의 수요예측	37
<표Ⅲ-12> 라면의 연령별 소비	41
<표Ⅲ-13> 라면의 직업별 소비	42
<표Ⅲ-14>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농산물의 수입관세율 변화	43
<표Ⅲ-15> 주요 농산물 수입쿼터 증가량	44

<표Ⅲ-16> 중국 농업부문 국내보조 감축약속	45
<표Ⅲ-17> 대 중국 특별 SG와 일반 SG 비교	46
<표Ⅲ-18> 무역자유화가 중국농업에 주는 영향 분석과 대책	47
<표Ⅲ-19> WTO 가입이후 중국농업의 품목별 변화 전망	50
<표Ⅳ-1> 대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동향	52
<표Ⅳ-2>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53
<표Ⅳ-3> 주요 곡물의 수입현황과 중국의 비중	54
<표Ⅳ-4> 주요채소 수입현황과 중국비중	56
<표Ⅳ-5> 화훼 및 특용작물의 수입현황과 중국비중	57
<표Ⅳ-6>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현황	58
<표Ⅳ-7> 한국 농산물 품목별 대 중국 수출현황	60
<표Ⅴ-1> 한국 농업의 SWOT 분석	66
<표Ⅴ-2> 한국 농산물 경쟁력 분석	67
<표Ⅴ-3> 계층별 소비성향	77
<표Ⅴ-4> 중국 도시별 다국적 할인매장 현황	79

圖 目 次

<그림Ⅲ-1>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비중(2000)	19
<그림Ⅲ-2> 식품시장 유통구조	31
<그림Ⅲ-3> 중국의 소비재 유통경로의 변화	31
<그림Ⅲ-4> 도시 주민 연간 1인당 신선과일 소비량	38
<그림Ⅲ-5> 도시 주민 연간 1인당 과일류 소비지출	38
<그림Ⅴ-1> 한국 농산물 경쟁력 제고의 방향과 수단	78



附表目次

<부표-1>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	85
<부표-2> 주요 성·시별 경제현황(2001)	86
<부표-3> 국민 소비 추이	87
<부표-4> 국민 소득 추이	88



SUMMARY

As the two nations' exchanges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degree of economical mutual dependence has been getting more serious. Furthermore, Korea and China easily influence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mutual supplementation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two nations' food cultures and consumption trends are similar as they are considered to be close neighbors. Rather than competition or replacement, two countries are closer to win-win strateg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the high speed growth of Chinese economy, the formation of large income classes, Chinese WTO joining, the World Cup of 2002 and Korean current gale which sweeps the Chinese continent have led th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o march into the Chinese market. But except for these kinds of chances, Korea is expected to suffer from th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expenses for international grain due to the import of th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t low prices which cause domestic market disturb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spect of Korean an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and analyz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rade structure, specially import structure of the products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structure and market structure of the products of China which is quickly rising as a trade partner in order to provide corresponding strategy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is discussion, it shows an export increase strategy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China.

Mainly this study was processed based on documents survey and it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general export strategies and each item's export strategies are provided. Regarding general export, first it is to set up export strategies aiming at the wealthy classes like Shanghai, Guangzhou, Shenzhen and Beijing as target markets and distinguish local products from high classes products.

Second,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recognition can be rais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Han race alcoholic liquors markets based on Korean residents abroad and the advance of large scaled distribution companies.

Third, public information strategies in compliance with each district's characteristics and positive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the Korean current gale spreading to China will be helpful.

Fourth, it is to develop new markets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with foreign superior products and market information collection as well as publicize the prowess of Korean products and find new buyers through exhibitions.

Fifth, trade should be expanded by investment advance aiming at localization selecting some competitive items in pricing because most of Korean products lost prices merits.

Sixth, it is to promote the cooperation and expand the exchanges in the agricultural field.

In conclusion, regarding Korean an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full understanding and analyzing for the Chinese market with the big potential power, we should make use of the advantageous situations about the formation of Chinese high income classes, the Korean current gale, Chinese WTO joining and accordingly expect export expansion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through the control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nflow to domestic markets.

I. 서 론

1. 연구배경

중국은 2001년 11월 14일 WTO 가입으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현대화에 의미 있는 역사적인 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발전추세의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공산품과 농산물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친밀성이 더해지는 추세이다. 한·중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도는 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식문화와 소비성향이 서로 비슷하고 농업 생산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한·중 농산물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한국에는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부단한 농업구조조정과 유통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농산물 수급에 있어서 기본적인 균형이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공급은 아직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월드컵 및 최근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고 있어 한국 식품에 대한 중국인 소비자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도 점점 심해져 동부 연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유층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은 한국 농산물 대

중국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은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여타 WTO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여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2년부터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 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가 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이 범람할 소지가 커지면서 한국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증대된다. 동시에 중국의 관세인하와 쿼터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곡물수입이 증가하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한국 농산물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에서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한국 농산물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무역상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농산물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나서, 한·중 농산물 무역변화와 전망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한·중 농산물 무역의 협력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농산물 수출입 무역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

둘째,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농산물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셋째, 한·중 농산물 무역현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넷째,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본 논문은 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 및 정책의 변화가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주로 다루며, 특히 중국 농산물 생산·소비·유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 대 중국 무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 문헌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중국농업信息网, 중국농업대외무역信息网, 중국통계국 등에서 각종 통계자료와 최근 발표된 각종 국내·외 논문집 및 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제II장에서는 한국 농산물 무역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구조와 국가별 수출입구조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농산물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 대 중국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하는데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다.

제IV장에서는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 대 중국 수출입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중 농산물 무역에서 중국 수출 가능 품목을 정리하였다.

제V장에서는 한·중 농산물 무역 전망을 분석하고 나서 한국 농산물 대 중국 무역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제VI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한국 농산물 무역구조

1. 농산물 무역현황

표II-1에서 보면 1990년 국가 전체의 총 수출액은 65,016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162,471백만 달러로 지난 십여년 사이에 15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1990년의 1,120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1,640백만 달러로 겨우 46.4%의 증가에 그쳤다. 농산물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농산물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7%에서 2002년의 0.1%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출주도형인 한국의 무역구조상 농산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 국가 전체 총 수입액은 1990년의 69,844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152,126백만 달러로서 117% 증가되어 지난 십여년 사이에 국가 전체 수출액 증가율이 전체 수입액 증가율보다 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990년의 4,828백만 달러의 적자로부터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수입 원자재의 급속한 수입감소 등으로 인하여 1998년 무역수지가 39,031백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면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농산물인 경우 총 수입액은 1990년의 5,382백만 달러에서 2002년 9,584백만 달러로 78.1%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무역수지의 적자폭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농산물인 경우 1998년 수입이 급속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환위기로 인한 수입 원자재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원료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가공식품류(과자류·면류·주류 등)의 수출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 중국의 수출액도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1999년은 외환위기를 벗어나 회복세가 있었으나 2000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

출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수출액이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94년 농산물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 이후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출은 16억 달러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수입은 시장개방초인 1995년에는 96억 달러로 최대수준에서 1998년 IMF시대에 다소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 8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1990년의 43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7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Ⅱ-1> 한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국가전체			농산물(농림축산물)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65,016	69,844	△4,828	1,120	5,382	△4,262
1995	125,058	135,119	△10,061	1,570	9,587	△8,017
1998	132,313	93,282	39,031	1,635	6,406	△4,771
1999	143,685	119,752	23,933	1,680	7,421	△5,741
2000	172,268	160,481	11,787	1,532	8,450	△6,918
2001	150,439	141,098	9,341	1,580	8,463	△6,883
2002	162,471	152,126	10,345	1,640	9,584	△7,944

자료 : KATI, 국내수출입통계(1990-2002년)

2. 주요 품목별 무역구조

한국 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무역구조를 볼 때 수출에 있어서 주로 가공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하여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1) 수출구조

한국 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표Ⅱ-2에서와 같다. 전체 농산물 수출 중 가공농림축산물의 수출비중이 신선농림축산물에 비하여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공농림축산물이 전체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52.9%로부터 2002년의 72%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인 경우 주 수출 시장은 일본이며, 일본의 작황과 수출기반에 따라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요한 수출품목으로는 오이, 토마토, 딸기, 신선고추, 파프리카 등이다. 2002년인 경우 일본의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의 풍작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딸기인 경우 일본의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김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이 상승작용을 하여 월드컵 개최 이후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과실류의 수출은 1999년의 35.5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82.8백만 달러로 무려 132% 정도 증가되었다. 주요한 수출품목으로는 사과, 배, 단감, 감귤 등이다. 2002년인 경우 대만의 시장개방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출노력으로 사과와 배를 신규 수출하였다.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으로의 단감수출도 증가되고 있고, 감귤인 경우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는데 검역문제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화훼류인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한 수출품목으로는 장미, 국화, 백합, 난류, 선인장 등으로서 수출규격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산 난류는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춘절(1~2월)기간에 맞춘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삼류인 경우 주요한 수출제품은 홍삼이다. 1996년 이후 한국내 인삼 생산량의 감소추세와 원료 삼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이 증가됨과 동시에 중국산 및 미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었다. 동시에 주 수입국인 홍콩, 대만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돼지고기인 경우 주 수출시장은 일본이다. 2000년 이후부터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구제역 및 콜레라의 발생으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밤 및 버섯류(송이, 표고버섯) 등 산림부산물은 한국이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으로 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수출된다. 송이버섯은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고, 표고버섯은 홍콩 및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산림부산물은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밤인 경우 가뭄, 태풍의 영향 및 밤나무의 노령화로 인하여 품질저하 및 중국산 저가 수출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송이버섯 등은 국내생산량의 감소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주로 식물성 유지, 빵류, 소오스류, 커피류, 당류, 과자류 및 면류를 포함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 이후부터 가공식품 수출액 비중이 높은 면류, 당류의 지속적인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Ⅱ-2> 한국 농산물 품목별 수출구조

단위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수출 총액	1,680	1,532	1,580	1,640
○ 신선 농림축산물	791.1	550.0	521.0	459.3
- 채 소	86.0	107.1	121.1	89.5
- 김 치	78.8	78.8	68.7	79.3
- 인 삼	84.3	79.0	74.8	55.0
- 화 휘	19.8	28.9	31.8	32.1
- 과 실	35.5	45.1	56.3	82.8
- 돼지고기	339.9	75.0	46.1	22.2
- 닭 고 기	2.1	3.0	3.1	3.3
- 산림부산물	144.7	133.1	119.1	95.1
○ 가공농림축산물	888.8	981.9	1,058.9	1,180.6
- 가공식품	764.8	860.4	967.9	1,108.8
- 목 재 류	124.0	121.5	91.0	71.8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

2) 수입구조

한국 농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액은 1999년의 1,680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1,640백만 달러로 감소되었으나 수입액은 7,421백만 달러에서 9,584백만 달러로 증가되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곡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옥수수과 밀의 경우 수입은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채소류인 경우 대부분 양념 채소류로서 주요한 수입국은 중국이다. MMA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강과 당근, 무, 배추 등 부패성이 높은 신선채소의 수입도 중국으로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실류는 주로 열대성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주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오렌지,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등이다. 주요한 수입국은 오렌지는 미국, 바나나는 필리핀과 몽키, 포도는 칠레, 파인애플은 주로 필리핀에서 수입되고 있다.

화훼류의 주요한 수입품목은 대만산 난초와 화란산 백합이다.

축산물인 경우 수입액은 1999년의 1,245백만 달러에서 '02년의 1,949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수입은 '02년에 급속히 증가되었는데 2001년의 수입개방과 국내산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닭고기인 경우 중국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인 경우 주요한 수입품목으로는 원목, 합판, 제재목, 가공석 등이다. 주요한 수입국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 나라들이다. 전체 임산물 가운데서 원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으며 주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임산물 수입이 제일 많으며 주로 가공석, 합판 등을 수입한다.

<표Ⅱ-3> 한국 농산물 품목별 수입구조

단위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수입 총액	7,420.7	8,450.2	8,462.8	9,584.3
○ 농 산 물	4,681.3	5,104.5	5,325.3	5,701.5
- 곡 류	1,527.6	1,532.1	1,546.7	1,646.9
- 과 실 류	285.8	349.4	353.7	419.3
- 채 소 류	175.5	187.3	192.4	195.5
- 화 훼 류	17.3	19.5	20.7	22.9
○ 축 산 물	1,245.2	1,678.7	1,466.5	1,948.5
- 쇠 고 기	505.4	795.0	555.4	946.8
- 돼 지 고 기	226.8	259.2	182.0	216.4
- 닭 고 기	45.9	64.7	97.2	101.9
○ 임 산 물	1,494.2	1,667.0	1,671.0	1,934.3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



3.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

1)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가별 무역구조는 표Ⅱ-4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으로서 1995년 수출액이 845백만 달러로 점유율 48.4%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590백만 달러로 점유율이 40%까지 하락하였다.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는 소주, 김치, 채소류, 밤, 송이버섯 및 기타 설탕 과자류이다.

반면에 제2위인 미국은 1995년 점유율이 5.4%이였으나, 2002년에는 1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4위였던 홍콩과 러시아는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1995년에 비해 점유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반면 제5위인 중국은 2001년 말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관세가 인하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이 축소됨에 따라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중국·대만 등 대 중화권에 대한 총 수출액은 전체의 18%(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Ⅱ-4>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1995		2000		2001		2002		주요수출품목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액	1,747		1,532		1,580		1,640		
일본	845	48.4	720	47.0	638	40.4	590	40.0	소주, 김치, 채소류, 밥, 송이버섯
미국	95	5.4	146	9.5	173	11.0	214	13.0	면류, 과자류, 연초류, 과일류, 주류
홍콩	212	12.1	134	8.7	131	8.3	107	6.5	자당, 홍삼, 맥주, 비스킷
러시아	149	8.5	74	4.8	129	8.2	135	8.2	면류, 과자류, 커피류, 돈육, 소오스류
중국	95	5.4	118	7.7	109	6.9	130	7.9	당류, 합판, 주류, 커피류, 소오스류
대만	80	4.6	55	3.6	47	3.0	65	4.0	과실류, 커피류, 과자류, 채소류
필리핀	-	-	30	2.0	54	3.4	32	2.0	당류, 전분, 돈육, 면류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농림업주요통계 1995~2002

2)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한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은 표Ⅱ-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대의 수입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1995년 전체 수입액 가운데서 36.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25.8%까지 감소하였다. 주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쇠고기, 대두, 밀, 옥수수 등이다.

제2위는 중국으로서 1995년의 637백만 달러에서 2002년의 1601백만 달러로 약 2.5배정도 증가하였고, 옥수수, 합판, 밀, 한약재가 수입되고 있다.

제3위는 호주로서 쇠고기, 밀, 사탕 수수당, 원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제4위인 뉴질랜드에서는 침엽수원목, 쇠고기, 치즈, 키위 등을 수입하고 있다.

제5위인 브라질에서는 옥수수, 대두박, 오렌지, 제재목이 수입되고 있다.

<표 II-5> 한국의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1995		2000		2001		2002		주요수출품목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액	9,477		8,450		8,463		9,584		
미국	3,506	36.2	2,434	28.8	2,371	28.0	2,471	25.8	쇠고기, 대두, 밀, 옥수수
중국	637	6.6	1,405	16.6	1,111	13.1	1,601	16.7	옥수수, 합판, 밀, 한약재
호주	624	6.4	776	9.2	665	7.9	802	8.4	쇠고기, 밀, 사탕 수수당, 원목
브라질	220	2.3	218	2.6	418	4.9	443	4.6	옥수수, 대두박, 오렌지, 제재목
뉴질랜드	463	4.8	340	4.0	319	4.6	450	4.7	원목, 쇠고기, 치즈, 키위
인도네시아	706	7.3	383	4.5	356	4.2	409	4.3	합판, 제재목, 섬유관, 야자유
영국	-	-	245	2.9	265	3.1	360	3.8	위스키, 권련, 사료첨가제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농림업주요통계 1995~2002

Ⅲ.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1. 중국 농산물의 무역구조

중국은 국토가 광대한 까닭에 농수산물의 수출입은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면 북방지역은 매년 다량의 사료작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남방지역은 사료작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은 가공식품 등 식품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가능한 모든 농업부산물을 수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일부 국영 수출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어 중소기업들이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어 향후 농업부산물의 수출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의 농촌지역 공업화로 폐수, 매연, 산업폐기물 등에 인하여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이나 위생 등에 대한 표준설정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 발전은 커다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와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팀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농촌경제녹서(綠書)”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2001년의 2.89:1에서 3.11:1로 더욱 벌어졌다. 이는 중국 농촌지역의 전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녹서에 따르면 2002년 중국 농촌경제는 우량 농산물의 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전년대비 2.9% 성장하는데 그쳤다. 농촌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1) 농산물 무역 현황

중국의 국가 전체 무역구조와 농산물 무역구조는 표Ⅲ-1에서 살펴보면, 국가전체의 무역규모는 2001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은 2,661억 달러이며 총 수입액은 2,436억 달러로 22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국내 소비 후의 잔여분을 수출하는 형태로 수출품목이 비교적 단순하고 물량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농촌의 공업화에 따른 오염물질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정성 및 위생 등에 대한 표준 설정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 농산물 무역은 여전히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흑자 폭은 1998년의 36억 달러에서 2001년의 19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감소되어 1998년의 6.5%에서 5.2%로 감소되었다. 국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수입액도 1998년의 5.9%에서 2001년의 4.9%로 감소되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전체 무역에서 농산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Ⅲ-1> 중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단위 : 억 달러

연 도	국가전체			농산물(농림축산물)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7	1,828	1,424	404	-	-	-
1998	1,837	1,402	435	119	83	36
1999	1,949	1,657	292	116	91	25
2000	2,492	2,251	241	133	119	14
2001	2,661	2,436	225	138	119	19

자료: 임정빈,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농산물 무역변화 전망, 세계농업정보, 2001, p28

1998~2001년 중국 농산물 무역현황을 보면 중국 농산물 수출 증가폭은 아주 완만한데 이는 중국 농산물 수출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내재하고 있다.

첫째, 농산물 품질 저하와 가공기술이 낙후하다.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대국으로 농산물은 주로 중국의 국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은 노동력과 토지자원의 우위를 갖고 있지만 경제조건의 제약을 받아 농업생산의 전문화·현대화 및 표준화의 정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농산물 품질 저하는 중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은 단지 저가 상품에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둘째, 일부 농산물은 높은 생산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화 경영과 현대화된 관리가 부족하고 우량 종자를 비롯한 투입재의 제약은 중국 농산물의 생산비용을 상당히 높게 만든다. 최근 농업구조조정과 수출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우량 종자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높은 생산비용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란은 한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

셋째, 위생검역상의 문제점이다. 중국은 축산물 수출에서 일정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생산·가공과 위생검역 면에서의 문제가 비교적 많아 축산물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 동시에 채소류, 곡물류인 경우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수입국으로부터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넷째, 불합리한 수출체제와 중국 기업의 맹목적인 경쟁에 있다. 중국의 현행 농산물 무역체제는 개방시장의 경제수요에 올바르게 적응될 수 없다. 중국의 농민은 국내 시장의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과도 괴리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과 무역이 서로 분리된 상황은 농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시장정보를 알 수 없게 하여 제때에 제품 구조를 조절하여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든다.

더욱이, 수출기업들 사이의 맹목적인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 양과와 버섯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명의를 중국의 수출가격이 너무 낮아 국내시장에

타격을 입혀 덩핑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로 수출기업들이 상호 경쟁하여 서로 가격을 낮게 매겨 형성된 결과로 농산물 수출량은 증가되었지만 수출액 증가는 미미하였다.

2) 주요 농산물 수출구조

중국 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표Ⅲ-2에서와 같다. 전체 농산물 수출가운데서 육류 조제품 수출이 제일 많으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으로는 곡류와 채소류로서 곡류는 주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며 채소는 대부분이 마늘과 생강이다.

중국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을 볼 때 육류 조제품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미국, 홍콩, 한국 등 나라로의 수출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곡물은 주로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채소인 경우에는 일본이 최대 수출시장이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홍콩이다. 기타 많은 농산물 수출가운데서 최대의 수출시장은 여전히 일본이다 (표Ⅲ-3).

<표Ⅲ-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목	1999	2000	2001	2002
- 육류조제품	1,386	1,882	2,045	2,327
- 곡물	1,135	1,639	1,034	1,651
- 채소	1,521	1,545	1,750	1,883
- 채소, 과일조제품	1,127	1,315	1,499	1,761
- 채유종, 종자, 인삼	806	877	914	940
- 기타동물성 생산품	622	757	653	650
- 육류	692	754	842	666
- 커피, 향신료	491	506	543	552
- 음료, 주류, 식초	457	494	573	597
- 과일, 견과류	426	417	436	555

자료 : 중국 농수산물무역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표Ⅲ-3> 중국 주요 농산물 국가별 수출 비중

품목	2000년(%)		2002년(%)	
- 육류조제품	일본 74.2 홍콩 6.1	미국 9.1 한국 1.2	일본 69.4 홍콩 6.2	미국 14.8 한국 2.3
- 곡물	한국 38.9 인니 10.7	말레이시아 14.2 러시아 3.5	한국 41.6 인도네시아 11.4	말레이시아 15.2
- 채소	일본 55.0 홍콩 4.6	한국 5.7 미국 3.4	일본 41.2 미국 5.0	한국 5.5 홍콩 4.0
- 채소, 과일조제품	일본 43.5 독일 6.7	미국 9.7 한국 3.4	일본 36.4 독일 6.6	미국 10.8 한국 3.1
- 채유종, 종자, 인삼	일본 32.8 홍콩 8.0	한국 11.7 화란 7.6	일본 25.9 홍콩 7.9	한국 13.3 화란 6.4
- 기타동물성 생산품	미국 23.4 독일 13.6	일본 20.5 화란 7.6	미국 28.3 독일 12.1	일본 17.1 한국 3.2
- 육류	일본 25.7 화란 5.0	홍콩 16.3 사우디 3.1	일본 30.5 러시아 19.4	홍콩 22.9 한국 1.6
- 커피, 향신료	일본 25.7 미국 5.7	모로코 13.4 홍콩 5.3	일본 23 미국 6.5	모로코 11.4 한국 4.9
- 음료, 주류, 식초	홍콩 71.9 미국 3.4	일본 9.9 한국 3.2	홍콩 66.1 대만 4.7	일본 8.8 한국 2.0
- 과일, 견과류			일본 23.8 말레이시아 6.6	러시아 7.5 한국 3.4

자료 : 중국 농수산물무역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3) 주요 농산물 수입구조

(1) 수입구조

중국 농산물 수입 증가는 수출 증가에 비하여 작다. 중국 농산물 수입은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영향과 국제 농산물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2년 인 경우 수입 증가가 예상외로 적은 주요한 원인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 농산물 무역체계에 대한 개혁과 정책적인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중국내 주요한 농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농산물 수입가운데서 종자 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

후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육류에 대한 소비도 증가될 것이고, 곡물, 과일 등 품목은 고품질류가 계속 수입될 것이다.

<표Ⅲ-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목	1999	2000	2001	2002
- 종자	1,639	3,072	3,344	2,776
- 동물성 유지 생산품	1,359	1,023	776	1579
- 조제사료	919	907	639	772
- 육류	499	637	597	626
- 곡물(쌀, 밀)	497	574	607	482
- 과일, 견과류	258	368	367	378
- 낙농품(우유, 크림)	164	218	219	272
- 연초	88	204	268	243
- 당류, 설탕과자	182	182	376	280
- 음료, 주류, 식초	123	161	146	148

자료 : 중국 농산물 무역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2) 국가별 수입 현황

중국 농산물의 주요한 수출국은 아시아 지역이었지만 수입지역은 주로 북미 지역이었다. 종자는 주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의 비중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 견과류인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은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류, 설탕과자인 경우에는 쿠바,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한국순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음료, 주류, 식초인 경우에는 프랑스 독일, 멕시코 순으로 한국은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농산물 및 농업의 미래는 중국이란 이 거대한 시장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브라질, EU 등 어느 나라보다도 식문화 형태나 지리적인 입지조건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품질제고와 여러 가지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표Ⅲ-5> 중국 주요 농산물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 %

품목	2002
종자	미국 35.6 브라질 32.6 아르헨티나 22.1 한국 3.6
동물성 유지 생산품	말레이시아 43.1 아르헨티나 15.6 인도네시아 15.4 브라질 9.8
조제사료	페루 51 미국 15.6 칠레 14.7 한국 2.6
육류	미국 84 캐나다 5.6 뉴질랜드 3.5 오스트레일리아 2.0
곡물(쌀, 밀)	오스트레일리아 50 캐나다 21 태국 16.4 미국 5.9
과실, 견과류	태국 18.7 베트남 18.3 필리핀 17.2 한국 2.3
낙농품(우유, 크림)	뉴질랜드 41.6 오스트레일리아 23.1 프랑스 13.6 미국 9.6
연초	짐바브웨 61.6 브라질 16.7 영국 5.5 한국 1.9
당류, 설탕과자	쿠바 34.1 오스트레일리아 24.4 태국 13.9 한국 11.1
음료, 주류, 식초	프랑스 34.2 독일 17.5 멕시코 10.7 한국 2.4

자료 : 중국 농수산물무역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3) 지역별 수입현황

중국은 국토면적이 광활할 뿐 아니라 경제 및 소득여건도 지역별 편차가 커 단일시장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성이 두드러진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북경시, 광둥성, 상해시, 산둥성 등 동부연안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한 소비지역이며 또한 식품 가공공장이 많이 분포하여 농산물 원료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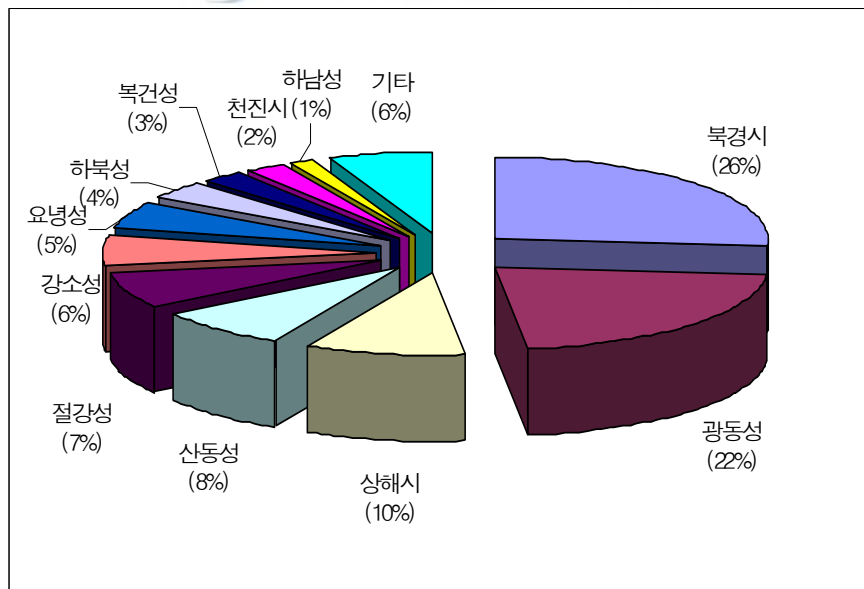
<표Ⅲ-6> 농산물 주요 지역별 수입현황(2000)

단위 : 백만 달러

성시별	전체	북경시	광둥성	상해시	산둥성	절강성	강소성	요녕성	하북성
수입액	9,987	2,630	2,158	966	795	691	607	522	362
성시별	북건성	천진시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해남성	산서성	내몽고
수입액	270	247	142	27	46	35	34	9	36
성시별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티벳	섬서성
수입액	82	74	28	7	58	23	23	6	11
성시별	감숙성	청해성	영하	신강	<주요도시>	심천시	주해시	산두시	하문시
수입액	15	1	4	81	-	583	99	64	61

주: 주요 도시(심천, 주해, 산두, 하문)의 통계는 해당 성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중국농업연감(*성시별 통계는 경영회사 소재지 기준임)

<그림Ⅲ-1>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비중(2000)



자료: KATI

2. 중국 농업생산 현황

중국은 대규모 농산물 생산·소비 국가이며, 농산물 무역에서도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농업생산은 세계화 조류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농업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1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2000년 말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15.9%, 50.9%, 33.2%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농업인구는 2001년 934백만 명으로 전체인구 1,276백만 명 중에서 73%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호수는 24.4백만호(2001년)이며, 전체 경지면적은 130,039천ha(1999년)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0.55ha로 매우 영세하다.

1) 지역별 생산현황

중국의 농업지역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북동북전작농업구(華北東北田作農業區), 동남답작농업구(東南畝作農業區), 서북내륙농업구(西北內陸農業區)이다.

화북동북전작농업구는 대부분 온대에 속하지만 북부 일부는 한대지대에 들어가며 연간 강수량은 400~800mm이다. 이 지역은 소맥, 잡곡, 목화, 땅콩의 주산지이며 전국 최대의 용재림지대이며 온대 과실의 주요한 생산지이다. 화북동북전작농업구는 2년 3모작, 1년 1모작으로 대부분 전작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수입되는 쌀은 동북지역에서, 채소는 주로 산동성에서 생산된다. 산동성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70%는 수출 및 전국 각지에 공급되고 있다.

동남답작농업구는 인구가 많고 강수량, 일조량 등 기후조건이 작물 생육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농업생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주요작물 생산량 비중이 매우 높아 중국 농업인구의 60%, 경지면적의 40%, 쌀 생산량의 90%, 면화의 45%, 유채의 79%, 땅콩의 50%, 차의 100%, 누에의 90%, 돼지사육두수의

60%, 중·대형 가축 사육두수의 40%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서북내륙농업구는 청장고원 북부 신강과 감숙, 녕하, 내몽고 서부가 속해 있으며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으며 사막, 광야, 산지가 전체의 95%를 차지함으로써 목초지가 넓게 분포되어 방목 목축업이 발달하고, 강수량이 100mm이하로서 작물의 생육에 매우 불리하다. 경종지역에서는 밀, 면화, 포도 등을 생산한다¹⁾.

2) 농산물 분류별 생산현황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개별농가의 경영청부제를 도입하고 1983년 인민공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업의 상업화가 급진전되었다. 인민공사의 집단경영에서 이러한 개별경영제로 바뀌면서 농업생산성이 급증되었다. 개혁개방이전 인민공사제하에서는 식량과 면화생산을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제작물 생산이 급증하여 전업농이 등장하였다.



(1) 곡류

부류별 생산현황을 보면 먼저 식량작물 중 벼는 재배면적으로는 식량작물 총재배면적의 약 28%를 차지하고, 생산량으로는 식량작물 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성, 강소성, 광둥성, 호북성, 강서성, 사천성, 안휘성, 강서성, 절강성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벼 품종은 장립종(인디카 타입)에서 중단립종(자포니카 타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소맥은 미국 다음 작물로 생산량은 약 1억 톤이며,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하북성, 안휘성이 주산지이다. 세 번째 중요 작물인 옥수수는 길림성, 산둥성, 흑룡강성, 하남성, 하북성이 주산지이며, 두류는 흑룡강성, 안휘성, 내몽고성, 산둥성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서류는 산둥성, 사천성, 안휘성, 하남성, 광둥성, 중경, 호북성, 호남성, 하북성 등이 주산지이다.

1) 중국 농수산물무역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p19

<표Ⅲ-7>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 만톤

구 분	1978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증가율(%) (1980~2000)
곡 물 류	30,477	32,056	37,911	44,624	46,677	50,839	46,218	44.2
- 미곡	13,693	13,991	16,857	18,933	18,522	19,848	18,791	34.3
- 소맥	5,384	5,521	8,581	9,823	10,196	11,388	9,964	80.5
- 옥수수	5,595	6,260	6,383	9,682	11,197	12,808	10,600	69.3
- 대두	757	794	1,050	1,100	1,788	1,894	2,010	153.1
감자,고구마	3,174	2,873	2,604	2,743	3,212	3,641	3,685	28.3
면 화	217	271	415	451	477	383	442	63.2
땅 콩	238	360	666	637	1,023	1,264	1,444	301.1
사탕수수	2,112	2,281	5,155	5,762	6,542	7,470	6,628	190.6
사탕무우	270	631	892	1,453	1,398	864	807	28.0
과 실 류	657	679	1,164	1,874	4,215	6,238	6,225	816.8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업출판사, 2001

(2) 과일류²⁾



과일류는 개혁개방 이후 생산량과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 상업농 전개 및 시장경제화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과일 재배면적은 867만ha(2000)로 세계의 18%, 생산량은 6,225만 톤(2000)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의 과일 생산국이다. 과일류는 개혁개방 이후 농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1978년 대비 생산지수는 식량작물은 200인데 비해 과일류는 1,000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 1979년 개혁개방화 계획으로 농가 생산책임제가 실시되고 80년대 상품 판매 및 시장가격이 자율화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2) 김병률 외, 중국의 WTO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24~50

중심 품목으로는 사과, 배, 감귤류, 복숭아, 등이며 주로 신선과일로 소비되고 있다. 기타 품목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품종도 단순하고 품질 면에서 저급품의 비중이 높아 수입과일로 대체되고 있다.

<표Ⅲ-8> 중국의 주요 과일류 생산량 추이

단위 : 만톤

구 분	1978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사과	228	236	361	432	1,401	2,080	2,043
감귤	38	71	181	486	823	1,079	878
배	152	147	214	235	494	774	841
포도	10	11	36	86	174	271	328
바나나	9	6	63	146	313	419	494
계	657	679	1,164	1,874	4,215	6,238	6,225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업출판사, 2001

특히 고품질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 불과하며, 특히 수출기준에 적합한 상품은 5%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 적고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가공비중은 전체생산량의 5~10%로 매우 낮다(사과 5%, 배 5%, 포도 20%).

과일 수출량은 총 생산량의 약 1%, 세계교역량의 약 2%에 불과(2000년 사과 약 28만 톤, 배 15만 톤 정도 수출)한 수준이다. 수확 후 상품화 처리 기술의 낙후와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수확 후 완전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비중은 총 생산량의 약 1%에 불과하다.

개별 농가의 과일류의 판매는 90년대 이후 다양한 산지 유통업자와 중간상인의 출현으로 과일판매처는 산지시장 직접판매와 산지상인(기업) 판매의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3) 채소류

채소류의 전체 재배면적은 1,600만ha(2.4억 畝)로 세계 재배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4.45억 톤('01)으로 추정된다. 채소 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약 9% 수준이며,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채소류는 크게 시설채소와 노지채소로 구분되며, 현재 시설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공급도 계절성을 벗어나 주년화 추세이다. 주산지는 산동성, 해남성, 광동성, 호북성, 강소성 등지이며, 5대 산지의 재배면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이 가장 큰 주산지로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12%와 16%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 재배농가의 90% 정도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개별영농 형태이며, 농가당 재배규모는 0.1~0.2ha 정도의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나머지 10%는 집단소유제 경영형태로 계획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소류는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기술 수준의 상대적 낙후성에 따른 저품질 위주의 생산체계, 농약오염 등 안전성 문제발생, 낮은 가공율 및 저장수준, 수확 후 처리기술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급품 생산 비율이 전체의 30% 미만 수준이며, 저장율은 20%, 가공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되며, 수확 후 선별·포장·등급화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채소 재배지는 벼와 목화의 재배지가 전환된 것이 많다. 1981년 7,200ha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약 100만ha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시설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하우스)면적은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순으로 4개 지역이 전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산동성은 중국 전체 시설재배 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재배 형태는 터널, 간이하우스, 겨울 가온하우스,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다. 북위 34~43도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보급에 의한 채소 주년재배가 실현되고 있다.

<표Ⅲ-9>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품목	재배면적(천ha)			생산량(만톤)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배추	1,736	1,830	2,021	7,933	8,071	8,430
무	1,032	1,088	1,128	3,316	3,306	3,736
오이	894	934	1,066	3,222	3,481	3,319
대파	434	442	530	1,418	1,332	1,724
토마토	786	848	931	2,888	3,155	3,353
가지	652	694	689	2,118	2,261	2,215
고추	1,092	1,122	1,251	2,522	2,566	2,715
양파	-	-	-	1,004	1,087	1,129

자료: 중국농업통계자료, 중국농업출판사, 2000

(4) 화훼류

화훼산업의 성장에 따라 화훼시장, 화훼 판매상이 증가되고 화훼전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말 화훼 생산면적은 122.6천ha로 최근 5년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13.5배, 시장은 3.1배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화훼생산 방식은 소농경영방식에서 규모화·전문화·상품화 생산구조로 전환하여 과거의 분업적 생산에서 도급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화훼 종류와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1999년 말까지 중국 화훼 재배면적은 121,581ha로 1998년의 85,928ha에 비해 4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식용·약용 화훼류이고 다음은 종묘류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중국의 화훼가 조경 중심이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한 절화, 분화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화훼의 시설면적은 1998년의 6958ha에서 1999년의 8,852ha로 27.2% 정도 증가하였다. 시설재배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감숙성 85%, 요녕성 53%, 운남성 50%, 길림성 44% 순이다. 1999년 중국의 화훼 시설은 대형 비닐하우스 및 수입

온실과 같은 현대화된 시설은 전체 시설면적의 10.9%에 불과하며, 무가온 일광 온실이 13.9%, 소형 비닐온실이 36.9%, 비가림 정도의 차광온실이 30.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은 절화, 분화가 비중이 크며, 특히 현대화된 수입온실에서는 절화, 분화의 비중이 더 크다.

중국의 화훼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외국과 제휴도 늘어나 대규모 생산화와 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훼생산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다수 농가의 경영규모는 작아 1ha 이하 개인 경영체가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고, 생산시설이 낡고 전문화 정도가 낮아 생산비가 높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3. 중국 농산물의 유통실태

1)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혁³⁾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농산물 시장이 발전하면서 주체, 업종 등이 다양화되고 유통구조와 시장 시스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유통주체 유형에는 국유기업, 국유 및 국유주식통제기업, 집단기업, 기타 연합경영기업 및 사유기업, 외자기업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로 볼 때 국내 기업, 공소합작사, 민영기업, 농업생산자 등이 농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경제유형과 유통조직의 공존, 수준이 다른 시장의 공존은 현재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구조의 뚜렷한 특징⁴⁾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종 농산물의 특징과 수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통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9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서 식량, 면화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시

3) 전창곤 외,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33~41

4) 부표-1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을 참조

장을 개방하였으며, 정가제와 자유구입가제를 시행하였다. 먼저 식량유통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방향은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과 시장관리에 대한 강화이다. 1998년 식량 생산과 수급 형태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서는 정부와 기업 분리, 중앙과 지방의 책임 분리, 신규 회계장부 분리, 가격메커니즘 실행 등 일련의 정책성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0년에는 식량 수요기업이 직접 농촌 현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농촌시장의 개방을 지원하였다. 1998년부터 면화 및 공업원료 농산물의 시장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외 육류 및 신선농산물 등의 시장도 개방하였다.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의 실현을 의도한 것이었다.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제개혁과 함께 농산물가격 체계에 대한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량가격체도를 개선하고 농산물간 상대가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 식량의 구입가와 판매가를 인상시켰으며, 1997년부터는 식량구매 보호가격제를 실행하였다. 농민들로 하여금 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급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에는 양질 벼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1999년에는 식량의 정가와 보호가격을 일부 인하시킴으로써 식량가격에 품질, 등급, 계절 및 지역차이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북방의 봄 밀, 남방의 올벼와 강남 밀 등 일부 품질이 낮고 시장 판매가 어려운 품목을 국가 식량 보호가격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1년 정부는 주요 판매 지역의 식량가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곡물가격을 완전히 시장조절 기능에 맡겼다.

셋째,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해 개방, 통일, 경쟁, 질서가 있는 시장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농산물 시장정보제공체계, 품질표준체계, 검사와 검측체계 등 관련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산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1998년 이전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주로 ‘채람자공정(菜籃子工程)⁵⁾에 의해 진행되면서 많은 저장창고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저장 창고는 9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도매시

5) 1998년 채소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무원에서 비준하고 농업부에서 실행한 정책방침임

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초급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농산물 주요 산지에서 지역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1999년 중앙정부와 각 지역은 '생산지 도매시장을 농업기초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해 나감과 동시에 농산물 도매시장도 함께 건설해 나갔다.

넷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정책의 추진과 함께 농산물 시장정보, 품질표준체계, 검사 체계를 강화하였다. 1998년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수집과 발표를 제도화하고 농민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2000년에는 농산물 시장정보와 식품안전 및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부는 2001년부터 3~5년간 전국 성, 시, 현, 향진기업, 시장, 농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장정보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농산물 시장정보 수집과 발표제도의 완벽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5년간 2,500여종의 농업 업종표준 및 농산물 품질표준의 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유기업과 공급판매 합작사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자립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유제와 지역, 업종을 뛰어 넘는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농민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농민의 시장진입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과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공·판매기업과 농가가 협력하고, 무역·공업·농업이 일체화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직접연결, 체인경영, 물류송달, 다양한 형식의 연합체 운영,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섯째, 중국 정부는 농산물시장 유통질서에 대한 정돈과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4년부터 월별 주요 농산물 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중요한 농산물 구매가격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가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표준을 강화하였다. 1998년부터 농산물시장 유통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 유통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산물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시장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조사 통계와 분석제도를 개혁하고 전문가에 의한 가격심의제도와 정책공시제도를 실행하였다.

2) 유통환경의 변화와 유통 다원화

90년대 이후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시장의 유통체계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어 다양한 경영방식이 도입되고, 다원화된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유통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상품가격의 결정이 전체 거래에서 95%에 이르고, 국가가 공식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전체의 5%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의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고, 수급에 의한 가격형성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산지와 소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통주체가 형성되어 시장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장이 건설되어 시장구조가 완전경쟁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시장 기능이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중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으로 1995년 외국기업의 연쇄점 진출을 허용한 이후 다국적 유통업체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백화점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창고형상점, 쇼핑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 유통기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인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할인점들이 상해 등 대도시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변화를 선도하였다. 대도시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전형적인 소매시장인 집무시장(集貿市場)에서의 농산물 유통은 여전히 산물 형태의 거래로 거래 및 물류 표준화와 시장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외국계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포장규격이나 품질을 산지 상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산지

유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형 슈퍼마켓이 산지에 직접 농장을 경영하거나 산지유통인 또는 생산자와 계약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산지의 유통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켰다.

한편 산지 및 소비지 유통구조 변화와 동시에 소비자의 식품소비 및 농산물 구매 패턴도 빠르게 변화되었다. 소비의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산지에서는 농산물 가공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소득층의 확대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기농산물,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등과 같은 안전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검사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문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 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지 생산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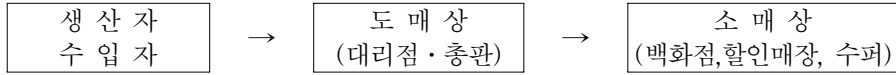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각종 유통기구가 신규로 조직화되고 다양한 상인이 출현되고 있다. 중국 농산물 유통의 경우 현재 수많은 종류의 중간업자들이 산지와 소비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집·출하업자, 도매업자, 중간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과 같이 뚜렷이 그 역할이나 기능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조직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단순하다.

3) 농산물 유통구조 및 특성

(1) 유통구조

식료품 시장의 유통구조는 생산자, 수입자가 도매상(대리점, 총판)을 통해 소매상(백화점, 할인매장, 슈퍼)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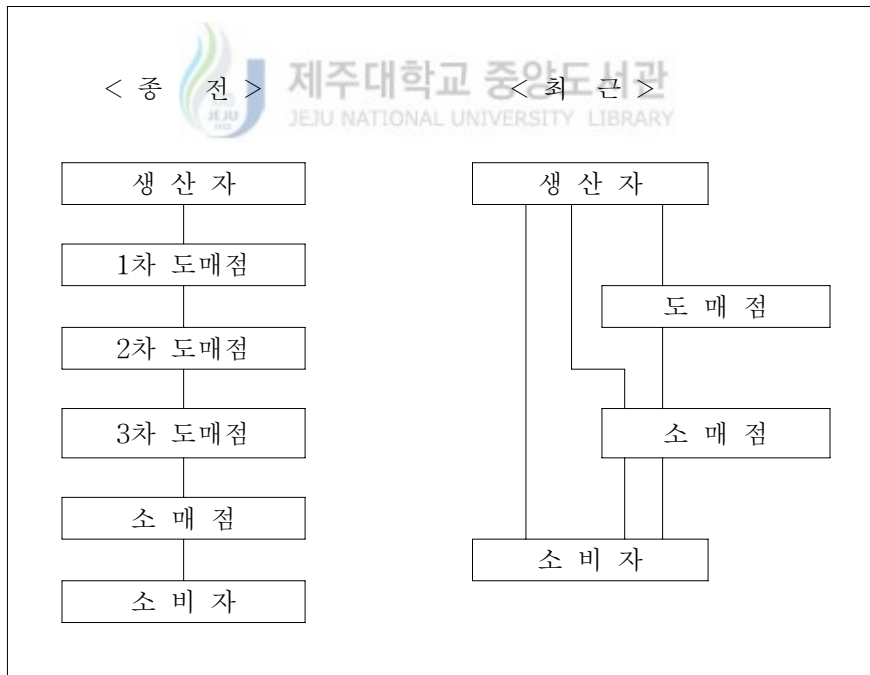
<그림Ⅲ-2> 식품시장 유통구조



한국의 유통시장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최종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상식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과거에 비해 유통단계가 축소되는 경향이며,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과거 각 단계의 도매점을 경유하는 패턴에서 도매점 유통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Ⅲ-3참조).

<그림Ⅲ-3> 중국의 소비재 유통경로의 변화



자료: 대중국 농산물 수출여건 및 확대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p9

(2) 구조적 특성

① 비합리적인 유통단계의 다단계화 및 고율의 유통마진을 요구

중국은 거대한 시장인 까닭에 식품 유통시장은 단일시장이 아닌 경제발전 정도에 의한 경제적 지역별로 구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경·상해 등 동부연안의 대도시와 중소규모 도시간에는 확연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동부연안 대도시는 거상의 생산·수입자로부터 물량을 일시대량 구매하여 자신이 관리하다 중·소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하여 공급질서의 편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거상에 편입된 유통구조는 고율의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며 시장 개척시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유통마진율로 보면 도매상인 경우 25~35%, 소매상인 경우에는 25%이다. 이와는 달리 경제규모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거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아 유통단계가 단순화되어 있다.

② 입점비, 제품등록비, 협찬금 및 각종 비용 소요

소매상이 입점업체로부터 입점비, 제품등록비, 협찬금 등의 요구비용이 다양하여 부담이 크지만 한국 농산물인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대리상과 사전계약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전가되므로 입점 제품이 시장성이 없을 경우 위험부담의 증가 및 이윤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상해의 주요 소매점포의 각종 비용은 점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점비, 제품 등록비, 업무추진비 등은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비용이다. 상기의 주요한 비용 이외에도 광고비, 시식비, 행사비 등을 요구하며 품목당 진열비까지 요구하는 상당한 자금부담을 주기도 한다.

③ 외상중심의 거래형태

중국 유통시장과 상인들의 관습은 일반적으로 외상거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결제기간도 최소 2~3개월의 외상거래를 수반한다. 시장에서 검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소 50% 이상은 외상거래를 요구한다. 이것은 중국 시장 진출 초기에는 외상거래를 전제로 한 사업진행으로 위험부담 증가 및 막대한 자금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④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관행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나 외국인 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식을 넘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국내 내국인 거래와 외국인 사업자 거래는 차별적인 양상이 표출되어 있다. 특히 식품인 경우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의 지연, 담합을 통한 구매 물품 배제 등의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4. 중국 농산물의 소비시장 분석

1)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 및 특성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는 色, 香, 味뿐만 아니라 소비의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도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시간 의식에 대한 변화로 편의식품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소득층의 확대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전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등과 같은 안전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안전 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에서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로 새로운 식품 수요가 증대되고 식품소비의 편의성이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외식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즉 전통적인 농산물이나 식품선호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 소득차이로 인한 소비계층 형성

국민경제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도시·농촌 주민소득과 생활수준

이 기본적인 의식주 만족수준에서 전체적인 중산 수준으로 발돋움했으며 소비지출⁶⁾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소비능력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각 지역의 소득수준의 지역적인 격차⁷⁾, 도·농사이의 격차⁸⁾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소비계층에 대하여 표Ⅲ-10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Ⅲ-10> 소비계층 분류

	富有階層	中産階層	小康階層	濫飽階層	貧困階層
연간가계 수입	10만元以上	3-10만元	1-3만元	5천-1만元	5천元以下
주요구성	민간기업, 합자기업, 경영자, 전문직업인	외자, 합자기업, 고급관리자, 정부고위관리	외자, 합자기업, 일반 직원, 정부간부	일반 봉급 생활자, 교사	농민, 실직자, 구조조정 대상자
소비특성	질 추구, 수입유명 브랜드 선호	개인취향 중시, 수입 증가 브랜드 선호	다원적 지출 성향 (가정용품중시)	절약형 소비 (의, 식, 주 등 생필품 소비 위주)	생존형 소비 위주
주거지역	연해 대도시, (북경, 상해, 광둥 등)	주요 대도시	대, 중도시 및 경제특수	중소도시, 향진	농촌, 향진

자료 :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위 표를 보면 부유층은 수도권 및 동부연안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중국인의 상위 5%에 해당되는 특권계층으로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품질 위주의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주요 구매처는 일반적으로 대형백화점, 수

6) 부표-1 국민소비 추이 참조

7) 부표-2 주요 성·시별 경제현황(2001년) 참조

8) 부표-3 국민소득 추이 참조

입산 전문 슈퍼마켓을 이용한다.

중산층은 동부연안 및 중부 내륙권의 외국지역에 거주하며 절제된 소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나 과거 구매경험이나 철저한 가격비교를 통한 선택적인 구매를 하고 있으며 주요한 구매처는 대형 할인마트, 슈퍼마켓이다.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부유층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현지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 고가에 속한 한국 농산물의 소비 대상은 부유층, 중산층에 해당하며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연휴 집중소비 증가

1999년 10월 1일 국경절을 계기로 시작한 중국 정부의 연휴정책⁹⁾이 햇수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구매시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연휴들이 춘절이나 노동절(양력 5월1일), 국경절(양력 10월 1일) 등 중국의 전통 명절이나 주요 기념일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황을 연휴 때문으로만 볼 수 없겠으나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

소매품 소비로는 베이징 대형상점의 매출액을 살펴볼 때 평소에 비해 평균 100%씩 증가했고 슈퍼마켓의 매출액도 50%, 요식업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하이 130여개 대·중형 상업기업의 매출액도 연휴기간동안 23.93억 위엔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39.5%증가했다. 이밖에 다른 도시의 매출액도 모두 30~1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서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판매가 도매시장에 비해 호황을 보였다.

또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춘절 연휴기간에 꽃을 선물하는 대유행이 나타났다. 일부 도시에서는 추석에 한국산 김치를 선물하기도 하고, 한국산 양란과 인삼소비는 주로 춘절 연휴기간 전과 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 법정 공휴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휴일을 유동적으로 조정, 이어 붙여 쉬는 조치

2)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중국 도시민의 농산물 소비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2001년 중국인 1명당 평균 206kg의 곡물을 소비하여 전체 식품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낮아지고, 1인당 야채 소비량은 2001년에 110kg이었으며 육류는 25.3kg, 란류는 11.8kg, 유제품은 5.5kg, 수산물은 11.7kg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수 단백질도 국민 1인당 평균 영양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즉 농산물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식품소비구조의 변화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중국 농산물의 수급구조는 장기적인 부족현상에서 수급균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수준 개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산물 소비가운데서 특히 녹색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녹색식품의 규모는 아직 다른 농산물과 식품 산출량에 비해 미미하지만 이 부문은 10년간의 발전에서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농산물의 품질과 소비의 안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녹색식품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발전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농산물 시장이 변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녹색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로부터 환영받아 왔다. 90년에서 1999년까지 녹색식품의 수는 127개에서 1360개로 약 9배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35만 톤에서 1,100만 톤으로 약 29배가 늘어났다. 중국에서 녹색식품 산업은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서 향후 녹색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① 곡물

식생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곡물수요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주요 농산물의 수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쌀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반면 밀·옥수수·콩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표Ⅲ-11참조). 특히 옥수수 수요는 점점 많아져서 2030년에는 곡물류 전체 수요가운데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표Ⅲ-11> 2005~2030년 주요 농산물의 수요예측

		국민1인당 평균수요량(kg)				
		1998 실제	2000 예측	2005 예측	2015 예측	2030 예측
곡물류	총량	385.0	393.2	393.2	401.9	411.6
	쌀	154.7	151.1	142.9	133.4	121.2
	밀	85.4	85.2	91.2	96.8	108.3
	옥수수	103.5	103.4	111.8	128.2	140.0
	콩	13.7	13.6	13.9	14	63.0

자료 : 서종혁 외, 중국 농산물의 수급과 생산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9

②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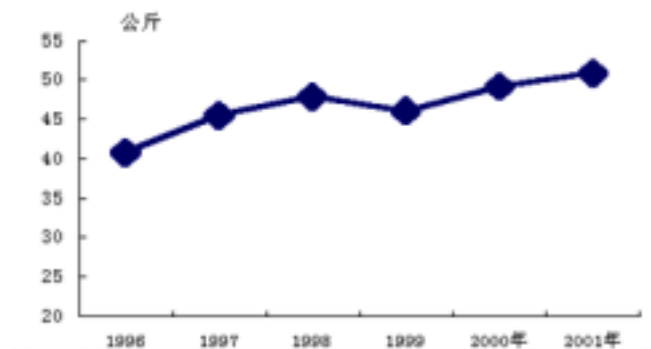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과실 생산이 크게 증대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과실 소비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그림Ⅲ-4). 동시에 과일에 대한 다양화, 고품질 및 과일음료 등 가공제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품소비 가운데 주식 소비 비중이 점점 감소되고, 부식품의 소비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전체 식품소비 중에 과일소비 비중은 점점 상승되고 있다. 도시민 1인당 식품소비지출 중 과일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6.35%에서 2001년의 6.52%로 증가되었다(그림Ⅲ-5). 그 이유는 생활수준의 부단한 제고와 건강·안전 의식이 더 한층 증가되어 사람들이 고품질 과일·과즙음료에 대한 소비가 날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넓은 음료수 시장에서 과일주스 시장은 2002년 가장 인기있는 품목으로 전체 시장에서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단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일주스는 간단하게 100% 과일주스와 비 과일주스로 나뉘볼 수 있는데 현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주스 종류로는 350여 개에 이른다.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방식의 변화로 과일주스에 대한 수요는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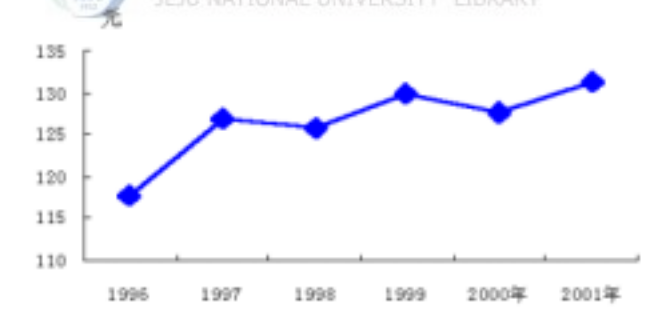
증하고 있다. 현재 중국 1인당 과일주스 소비량은 0.1ℓ로 선진국의 40ℓ, 개도국의 10ℓ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과일주스 시장은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림Ⅲ-4> 도시 주민 연간 1인당 신선과일 소비량



자료 : 2002년 과일시장추세분석, 중국농업정보망, 2002

<그림Ⅲ-5> 도시 주민 연간 1인당 과일류 소비지출



자료 : 2002년 과일시장추세분석, 중국농업정보망, 2002

③ 채소류

중국인들의 식량소비가 양에서 질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육류, 계란, 수산물, 신선채소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주곡인 쌀과 채소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1980년대에는 채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

이 적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채소에 대한 선택 경향이 강해지고 소비수요가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위 채소, 영양채소, 무공해 채소, 녹색식품 채소, 반 계절성 채소, 희귀품종과 야생채소(산나물 등), 건강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고급화되고 있다.

요즘 들어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은 김치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 사천성의 김치는 중국 김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맛은 지역마다 구미에 맞게 변형되어 있다. 남방에서는 단맛, 북방에서는 짠맛, 서부에서는 매운맛, 중부에서 신맛이다. 한국김치는 조선족 교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북김치로 중국인에게는 사천김치에 비교되는 맵고 짠 김치로 인식되고 있다. 김치 소비 초기에는 김치의 매운 맛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김치의 매운 맛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늘고 있다. 사천김치와 한국김치는 같은 김치라는 점 외에 맛이 달라 경쟁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김치는 한국식 김치와 다른 형태의 제품이며, 사천성이 집산지이나 전국 각지에서 변형되어 활발하게 제조되고 있다.

한국식당과 중국 동포들의 식당 및 가내 제조판매는 중국에서의 김치 소비 확대 및 홍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북경에서 김치에 대한 인지도는 불고기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국산 김치의 중국 소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올해 중국 전역을 휩쓴 사스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으면 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됨에 따라 김치 소비가 더욱 확대되었다. 동시에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중국의 냉장고 보유가정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김치 판매 확대 여건 조성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④ 화훼

중국에서는 최근 선물용과 관상용 화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친척, 친지를 방문할 때 기존에는 선물용 과일 바구니를 1하던 것을 화훼로 대체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소비용도는

주로 선물용과 개인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 선물용이 80~90% 정도를 차지하고 개인 가정 구입이 10~20%를 차지하고 있다.

가. 양란

중국인은 춘절에 꽃을 교체하는 습관이 있는데 서민층에서는 금굴나무(30~40위엔)를 선물하고 고소득층은 심비디움 등 고가 화훼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산 심비디움은 품질을 인정받아 춘절에 한국산을 선물해야 체면이 선다고 할 정도로 고급화훼로서의 인지도가 확정되었다.

중국의 화훼소비는 연중 소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비의 대부분이 춘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비디움인 경우 춘절 무렵 선물용으로 소비가 8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의 소득증가에 따라 연중 소비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산둥성이 분위기를 좋아하는 특성상 한국산 심비디움의 소비가 특히 많이 소비된다. 심비디움인 경우 수입량의 80%(33만본)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20%가 대만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산 심비디움은 대부분 광둥성으로 수입되며 수출업체는 경기화훼¹⁰⁾가 약 30%, 일반 무역업체가 70%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 심비디움 가격은 130~140元/盆이며 경쟁국인 대만산은 100元/盆이다. 대만산은 한국산에 비해 저렴해도 품위가 낮아 시장점유가 한국보다 낮다. 호접란은 수입량의 80%가 대만으로부터 수입되고 한국산은 20%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나. 선인장

중국에서 선인장 소비는 양란과 같이 춘절을 중심으로 선물용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하여 일반 가정, 미용실, 상점 등 화분형태로 장식용으로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산 선인장은 날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색상별로 5개 세트로 선물용 포장을 하여 「發財¹¹⁾仙仁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선인장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멕시코, 대만이다. 국가별 수입금액

10) 경기화훼는 순덕시 현지법인인 경기화훼(순덕)유한공사로 수출

11) 發財는 돈을 번다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춘절(음력1월1일)에 하는 인사말임

비중을 보면 한국이 50%, 미국이 30%, 대만이 10%, 일본이 5%, 멕시코·독일이 5% 정도를 차지한다. 수입국가에 따라 선인장의 수입상품의 형태가 다른데 종묘는 일본, 중소형 상품은 한국과 대만에서, 대형은 미국, 멕시코, 독일로부터 수입된다.

⑤ 가공 농산물 소비 증가

생활 리듬의 빠른 속도로의 변화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사람들이 편의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중국의 편의식품 시장에서 라면은 60%의 시장 세어를 차지한다. 현재 중국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192억개로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최대 라면시장이다. 그러나 2000년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비량은 15개, 일본(44개)과 한국(80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라면의 시장잠재력은 무척 큰 상태이다.

北京市新生代市場監測機構¹²⁾에서 실시한 20개 대도시의 라면 소비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노년층보다 젊은 층이 라면소비를 더 선호하며 직업별로는 정규직과 학생층이 라면을 제일 많이 소비한다.

<표Ⅲ-12> 라면의 연령별 소비

단위 : %

구분	15~25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조사대상자전체	23.4	29.3	22.4	13.7	11.4
대량 소비자	29.2	27.1	24	12.2	7.5

자료 : 中國經營報, 2000. 2. 2

12) 북경소재 컨설팅 회사

<표Ⅲ-13> 라면의 직업별 소비

단위 : %

구분	정규직	학생	퇴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임시취직자	가정주부	기타
조사대상자	49	12	11	10	7	5	2	2
대량소비자	46	17	9	10	8	5	2	2

자료 : 中國經營報, 2000. 2. 22

라면은 오랫동안 저급식품으로 취급되어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소비되어 왔지만 최근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별식으로의 고가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고가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단가 3위엔 이상의 고가 제품이 라면 총 소비량의 거의 1/3을 점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선진설비를 통한 에너지와 기름 소모 감소,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유전공학기술을 통하고 농축동식물, 천연물질을 취해 만들어진 보건형 및 영양 강화형 조미료 생산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원료의 비교우위와 지방특색을 가진 라면과 원료의 자연화, 맛의 개성을 가진 영양강화형 튀기지 않은 라면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점차 받을 것이다.

5.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농정의 변화전망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무역자유화 이행계획 내역¹³⁾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가입이 승인되었고, 12월 11일에는 가입이 정식 발효되어 143번째 회원국

13)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농정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 91~92

이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며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시에 WTO의 특별 조치들도 수용하였다.

(1) 농산물 시장개방

2005년까지 중국은 농산물의 평균 관세를 15.5%로 인하하고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제한하였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및 기타 회원국에서 관심을 갖는 100여개 관세 항목도 삭감하는데 과일, 육류, 유제품 등이 포함된다.

<표Ⅲ-14>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농산물의 수입관세율 변화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2001년	2004년		2001년	2004년
쇠고기	45	12	감 귤	40	12
돈 육	20	12	오렌지	35	11
닭고기	20	10	신선딸기	30	14 *
치즈	50	12	포도	40	13
와인	65	14	사과	30	10
위스키	56	10 *	아몬드	30	10
포도주	65	20			

주 : * 위스키는 2005년까지, 신선딸기는 2010년까지 임

동시에 일부 주요한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관세할당제(TRQs)¹⁴를 실시하였

14)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형태 중 하나로서 정해진 수량(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저렴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의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중국은 주요 곡물에 대하여 TRQ물량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정해진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 예를 들면 중국의 쌀에 대한 관세할당제 적용물량은 중단립종의 경우에만 1995천톤인데, 이는 저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의할 뿐, 해당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다. WTO 가입 후,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두유, 종려유, 유채 기름, 설탕, 양모, 털실, 면화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해 절대 쿼터 관리로부터 관세할당제로 변경하고 수입쿼터량의 증가폭에 대해서도 승낙하였다.

WTO 가입 후 중국은 식량, 면화, 식물식용유, 설탕과 담배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 농산물의 수입을 보류하고 차, 쌀, 옥수수, 콩, 실크와 면화 등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를 실행하며,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일정 수의 기업이 전문 경영한다. 이밖에 식물식용유(두유, 유채유, 및 종려유)의 국영무역관리는 2005년 1월 1일에 취소한다.

<표Ⅲ-15> 주요 농산물 수입쿼터 증가량¹⁵⁾

단위 : 천톤, %

품목	2002년		2004년		
	시장접근물량	민간비중	시장접근물량	민간비중	
밀	8,468	10	9,636	10	
옥수수	5,850	33	720.0	40	
쌀	중단립종	1,995	50	2,660	50
	장립종	1,995	10	2,660	10
콩기름	251.80	66	311.8	90	
면화	81.85	67	89.4	67	

주 : 2006년부터 TRQ 제도를 폐지하고 9% 관세만을 부과함

자료 : 일본 농림성(2002. 1. 5), 미국 USDA-ERS(2001; 2002) 참조

(2) 국내농업보조금의 허용 한도¹⁶⁾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업보조금의 감축약속을 이행하는데 출발점인

15) 이인우,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농협조사부, 2002, p7

16) 이인우,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농협조사부, 2002, p9~12

기준년도 AMS를 0위원(元)으로 계산한다(1996~1998년 기준).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8.5% 이내의 한도로 정하였으며 품목 특정적, 품목 불 특정적 국내보조의 허용한도는 연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8.5% 한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단 UR 농업협정 제6조 제2항에 의해 감축약속이 면제되어 있는 일반적 농업보조액은 AMS에 산입하며 8.5% 이내로 제한하기로 약속하였다.

<표Ⅲ-16> 중국 농업부문 국내보조 감축약속

구 분	합 의 사 항
기준년도 국내농업보조 AMS	영(0) 위안(元)
최소허용보조 한도	농업총생산액의 8.5%
일반적인 농업보조액	AMS에 산입하여 8.5% 이내로 제한

(3) WTO 특별 조치 수용



중국은 WTO 원칙의 특례로서 기존 가맹국들이 마련한 ‘대 중국 특별방어조치’의 조항들을 수용하였다. 대 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입 후 12년간(2013년까지) 경과조치로서 유효하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국들은 중국에 대하여 ‘대 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중국의 수출확대로 인한 가격폭락, 국내산업의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중국은 WTO 가입이 인정됨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들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을 수용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일반 세이프가드 내용과 비슷하나 피해선정 기준 및 발동기간에 차이가 있다.

<표Ⅲ-17> 대 중국 특별 SG와 일반 SG 비교

구분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일반 세이프가드
대상국	중국	WTO 회원국
적용요건	수입증가, 시장교란, 인과관계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인과관계
피해개념	실질적 피해	심각한 피해
조사시 검토할 객관적 요소	수입량, 수입이 동종/직접적 경쟁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상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 실, 고용등의 변화 등
적용기간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2~3년단위로 발동가 능)연장가능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4년(8년까지 연장가능)
수출국의 대응조치 (보상협상)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 3년간 보복금지 상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 2년간 보복금지	절대적 수입증가에 의한 경우 : 3년간 보복금지
제3국의 SG에 대한 대응조치 (우회수출방지)	중국산품에 대한 SG조치로 제3국 으로의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없음
절차관련 의무	- WTO 통보의무 -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이전에 중국측에 협의요청 (시장교란 예방 /구제조치)	- WTO 통보의무 - 보상협회
적용기간	가입발효일부터 12년 (2013년 12월 19일까지)	

자료 : 이인우, 중국농업의 변화와 전망, 농업조사부, p12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농업의 변화 및 전망

<표Ⅲ-18> 무역자유화가 중국농업에 주는 영향 분석과 대책

영 향	상응한 정책조치와 대책
1. 긍정적인 영향	
농업자원배치와 생산구조가 개선되어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이 확대될 것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의 발전전략 변화 비교우위업종을 중점적으로 발전
원예작물(채소, 과소, 화훼 등)의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지만 단기간 그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인데 주요 원인은 품질 및 저장과 운송 등 기초 시설 제한	품종개량(질량)과 기술을 도입 저장운수, 신선도유지 등 기초시설건설 농산물표준화 및 품질감독시스템을 개혁 농산품(특히 식량) 시장유통체제를 개혁
돈육·계육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임	고효율 방역과 감독을 촉진
장기적으로 농민의 소득제고에 유리함	노동력 시장을 개선, 농촌자금 및 신용대부금시장 개혁 토지시장(土地流轉) 건설과 개선 강화
총체적인 가격 수준이 하락하여 사회 총 복리가 제고될 것임	이익 재분배 정책 시행
농산물 수출입 무역량이 확대될 것임	항구건설, 저장운송, 통신 등 기초시설건설을 강화
농산품 시장체계가 건립될 것임	농산품 시장유통체제개혁을 가속화
2. 부정적인 영향	
재배생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데, 특히 옥수수·소맥·유지작물·사탕작물·대두·면화 등 임	kg당 제품의 생산비용을 줄임 1) 농업과학기술,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생산량제고 2) 생물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비용을 줄임 3) 토지의 流轉시장을 개선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kg당제품 생산의 노동력투입비용을 줄임 4) 재배업생산에서의 비용외 지출을 줄임 5) 농업세를 감소함
식량 자급율은 하락하고 옥수수는 주요 수입식량(사료)으로 될 것임	단기: 옥수수시장 진입량을 제한 장기: 농업과학기술연구투자를 증가하고 기술을 인입하여 “식량안보”에서 “먹는 식량안보”로의 전략을 변화함
농업취업이 진일보 감소할 것임	노동력시장을 개선, 노동자소질을 제고
단기내에 재배업을 생계로 하는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될 것이고 빈곤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불안정문제로 대두될 것임	이익재분배정책 시행 재정세금징수와 재분배제도, 재취업훈련, 자금과 신용대부금 지지, 시장정보의 개선을 시도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어 옥수수·소맥·대두·유지작물·사탕작물·면화 주산지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임	이익재분배정책 시행 노동, 자금, 기술 등 요소시장을 육성

자료: 황계곤 외, 중국과학원농업정책연구중심, 2001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우선 WTO에 가입으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대외무역체제와 관련정책 및 법규를 조정할 것이며, 국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정하여 농촌경제체제개혁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유통관리체제를 개선할 것이다.

(1) 농업정책의 변화

첫째, 중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간 농업발전의 격차와 부존자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WTO 가입 후에도 지역간 비교우위성과 적응력이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적으로 원예농산물 등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할 지역인 산둥, 강소, 복건, 광둥성 등 동부연안 지역은 수출 농산물의 생산기반 및 기술과 저장, 가공, 선별포장 등 상품화 시설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곡물 등 비교열위 품목을 생산하여 WTO 가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서부 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수매가격 보호나 생산 하부구조 건설, 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득 보조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여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기업과 이들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과 수출의 원만한 연계를 위해 수출 농산물의 생산기지를 더욱 육성하고 생산단위를 확대하여 집단적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이 WTO에 공식 가입하면 무역·투자와 관련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초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을 더욱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 자본과 상품의 중국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 이래 수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도 비록 투자액수가 적지만 첨단원예시설, 종자산업, 유통업 등에

도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러한 외자유치가 중국이 농업현대화와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WTO 가입 후 외자유치 노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원예농산물에 있어서도 나타나 미·일·화란 등 선진국의 화훼 종자업체나 구근업체 등 우수업체들을 유인하여 원예농산물 재배기술과 상품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중국의 국내외적 위상의 변화

중국은 WTO 가입이후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대하게 유리하다.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회원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인정받고 공정한 시장 접근기회를 제공받게 됨으로 중국은 더욱 많은 국가에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유리하게 되었다.

반면에 자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게 되어 농산물 수입량이 증대될 것이다. 관세율 인하, 시장접근물량 쿼터의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인하여 농산물 수입량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농업분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WTO 가입으로 농업정책과 무역에서 국제기준을 따르게 됨으로서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 WTO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무역절차에서도 중국은 종전의 국가계획에 따른 국영무역을 축소하고 수입권을 배분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개방을 해야 한다.

(3) 농업구조의 변화 : 고소득 작목 생산에 집중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식품의 소비패턴이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농산물 공급체계도 변화될 것이다. 도시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육류와 과

일, 채소 등 고가의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밀과 장립종 쌀 등 식용 곡물에 대한 수요는 위축되어 육류, 과일, 채소 등 생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국제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가에서 작목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농가도 국제 농산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원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영농형태도 전환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비 농업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에 투입되는 토지, 노동, 수자원 등 생산요소의 비용이 상승(중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농업구조조정에도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농가는 작목과 품종, 농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고가의 환금작물과 곡물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국제농산물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4) 품목별 영향



중국에서 향후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으로는 과일·채소·축산물 등 노동과 자본 집약형이다.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으로는 쌀·밀·면화·대두·사탕 등 토지자원 의존형 작목이다.

<표Ⅲ-19> WTO 가입이후 중국농업의 품목별 변화 전망

품 목	WTO 가입시점	향후 변화 전망	근 거
곡물	쌀	연간 생산량의 2%를 시장개방 수출·수입 확대	생산감소 장립종 재배감소 가격경쟁 유리
	밀	연간 생산량의 6%를 시장개방 수출·수입 확대	생산감소 소비 선호 변화 경질 소맥 선호
	옥수수	연간 생산량의 4%를 시장개방 수출·수입 확대	생산감소 생산비용 과다 가격 경쟁 불리
	보리	자급률 69%, 수입	계속 수입 가격 경쟁 불리

대두	자급률 72%, 수입	생산부족 지속 수입확대	제품유 경쟁 불리 원료공급 부족
면화	연간 생산량의 15%를 시장개방	생산부족 개선 수입확대	생산의욕 회복 수출원료 수입
과일	자급률 100%	생산 확대 수출 확대	수요 확대 가격경쟁 유리
채소·화훼	자급률 100%	생산 확대 수출 확대	수요 확대 가격 경쟁 유리
육류	자급률 100%	생산 확대 수출 확대	수요 확대 가격 경쟁 유리

자료: 일본 농림성(2002. 1. 5), 미국 USDA-ERS(2001; 2002) 참조



IV.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간의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면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체 교역은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림축산물 교역은 매년 5~1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2년의 무역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표IV-1> 대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국가전체	9,144	11,394	13,572	11,944	13,685	18,455	18,190	2,375
	농산물	44.9	27.0	47.0	39.5	37.9	59.0	68.4	95.6
	축산물	1.1	0.7	1.5	2.1	3.1	3.1	3.8	3.1
	임산물	49.3	60.3	37.2	35.9	49.5	56.1	37.3	32.6
수입	국가전체	7,401	8,539	10,117	6,484	8,867	12,799	13,303	1,740
	농산물	412.5	531.6	934.9	623.9	551.6	1,152.0	846.1	1,265.9
	축산물	35.2	40.8	46.4	11.8	15.1	23.4	32.3	43.0
	임산물	189.5	246.2	293.8	138.6	213.7	282.6	338.5	491.0
무역수지	국가전체	1,743	2,855	3,455	5,460	4,818	5,656	4,887	635
	농림축산물	-541.9	-730.6	-1,189.4	-658.9	-689.8	-1,339.8	-1,107.4	-1,6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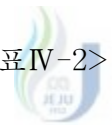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1.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구조

1) 주요 부류별 수입구조

한국은 중국에서 주로 원료 농산물 또는 반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중국의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으로 주로 곡류(옥수수, 수수, 쌀 등)가 포함된다. 제2유형은 한국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는 농산물로서 주로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가 속한다. 제3유형은 중국산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여 수입하는 농산물로서 유지작물(참깨, 땅콩, 들깨 등)·건조 채소류(고사리, 무말랭이, 건조파 등)·한약재류(인삼, 감초, 율무 등)가 속한다.

<표IV-2>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 산 물	412,544	933,490	621,625	551,618	1,152,039	846,089	1,265,880
● 곡류	14,246	497,201	359,804	191,559	703,203	361,453	721,940
● 채소류	49,623	65,853	60,609	72,086	77,403	92,041	95,740
● 박류	100,887	76,746	28,146	44,867	65,341	65,722	76,389
● 과실류	22,184	34,190	9,357	11,251	19,694	24,187	29,075
● 화훼류	2,097	2,007	318	967	994	1,325	1,702
● 채종유실	62,220	45,316	27,582	66,860	53,351	39,450	60,593
● 두류	11,257	11,009	10,602	19,129	25,195	28,226	30,638
● 한약재	47,516	64,216	29,266	36,544	47,748	37,021	34,994
● 소오스류	8,133	18,912	14,585	21,128	28,747	36,591	40,422

자료 : KATI, 수출입통계(1995~2002년)

2002년을 볼 때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된 농산물은 곡류로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57%를 차지한다. 채소류는 95.7백만 달러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류는 76.4백만 달러로서 6%를 차지한다.

2) 주요 품목별 수입구조¹⁷⁾

(1) 곡류

주요 곡물의 수입은 꾸준하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옥수수인 경우 미국을 초과하여 중국이 한국의 최대수출국이 되었다.

<표Ⅳ-3> 주요 곡물의 수입현황과 중국의 비중

단위 : 천톤, %

품 목	1995		1998		2001		2002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쌀	0.7	-	62	67.3	93	75.1	151	48.6
밀	2,342	-	4,695	0.4	3,629	9.3	3,863	14.8
콩	1,468	-	1,413	-	1,355	0.0	-	-
옥수수	33	0.4	7,111	36.5	8,482	32.7	9,130	66.1

주: ()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임

자료 : 관세청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액 가운데서 옥수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쌀이다. 밀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소량이므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다. 대두인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적고, 중국도

17) 김병률, 농산물의 수입동향과 경쟁력 강화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8~42

역시 대량으로 수입해야 할 입장이어서 한국의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다.

쌀은 한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중심으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품질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쌀 구매가격도 점차 인하하여 가격경쟁력도 향상될 경우 한국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쌀 시장을 관세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가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중국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2) 채소류

중국은 채소생산 대국으로 채소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채소 생산비가 국제 수준보다 낮은 가격면에서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채소는 후진국의 농산물 품질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량했으나 국내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WTO 가입에 대비한 농업구조조정과 수출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품질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특히 정책적으로 양파 등 외국의 우량종자를 수입하는 등 품종개량이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재배기술과 첨단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건조·선별·저장·가공기술 등 수확 후 상품화기술이 급속히 도입되면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한국의 중국산 채소수입은 표IV-4에서와 같이 마늘·양파·생강·무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된다. MMA물량(한국국내 소비량의 3~5%)으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생강과 당근, 무, 배추 등 부패성이 높은 신성채소의 수입도 중국으로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추인 경우 MMA 물량 이외의 민간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한 양허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건 고추, 고춧가루 이외에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관세: 27.6%), 혼합조미료·기타 소스(관세: 45%) 등 관련제품 형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동성 항구와 국내 항구 사이에서 상시 왕복하는 여행자를 통한 휴대수입도 상당한 물량에 달하고 최근에는 밀수까지 늘어나고 있다.

마늘인 경우, MMA로 수입되는 물량 이외에 신선냉장마늘이 고율관세로 민간수입되고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이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1998년 4만 톤에서 1999년에는 4만 5천톤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한·중 마늘협상으로 관세할당량이 수입되고 있지만 국내 마늘가격 하락으로 중국산 마늘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짐에 따라 2000~2001년에는 수입량이 2만여톤으로 줄어들었다. 양파인 경우 1998년까지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었으나 2001년에는 중국산이 99.1%를 차지하였다. 생강인 경우 한국산보다 수량성이 높아 종자용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표Ⅳ-4> 주요채소 수입현황과 중국비중

단위 : 천톤 (%)

품 목	1995		1998		2001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고 추	5.1	98.6	5.7	98.9	10.9	87.7
마 늘	12.2	84.4	39.7	99.9	26.5	100
양 파	14.3	0.14	13.0	36.1	11.5	99.1
당 근	0.3	43.6	3.6	99.6	13.5	83.8
생 강	2.2	100	2.6	99.1	19.0	99.8
배 추	0.1	0.0	0.0	-	0.2	93.7
무	-	-	0.0	21.1	0.5	100
오 이	3.5	0.0	3.4	1.2	5.9	-

자료 : 관세청

(3) 화훼 및 특용작물

중국산 화훼 및 특용작물의 수입현황으로 화훼수입은 2000년을 제외하면 큰 변동은 없으나 중국산 화훼 수입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되었다. 참깨, 유채기름, 메밀 등 특용작물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표IV-5참조).

<표IV-5> 화훼 및 특용작물의 수입현황과 중국비중

단위 : 천톤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화훼	0.2 (0.3)	0.2 (1.9)	0.2 (9.2)	0.1 (0.4)	0.1 (12.1)	0.3 (47.0)	0.2 (44.3)
참깨	42.1 (100)	67.8 (89.3)	65.2 (17.0)	54.0 (11.2)	61.0 (70.0)	70.1 (48.8)	77.4 (28.8)
참기름	0.4 (3.5)	0.4 (1.9)	0.5 (0.2)	0.2 (1.0)	0.5 (5.6)	0.6 (0.0)	0.6 (31.8)
들깨	13.3 (99.9)	14.0 (99.9)	14.2 (99.9)	12.1 (100)	12.2 (100)	9.9 (100)	2.7 (100)
유채유,겨자유	8.6 (0.0)	11.4 (0.0)	10.8 (0.0)	5.4 (0.0)	7.7 (2.7)	8.3 (0.0)	12.0 (0.0)
메밀	2.6 (100)	1.0 (100)	1.2 (100)	1.2 (100)	1.7 (100)	3.1 (100)	3.6 (100)

주 : ()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임

자료 : 관세청

2.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분석

한국 농산물 대 중국 수출은 중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1차 농산물과 소비 성 식품의 수출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서 농가소득 유발효과가 낮은 품목의 비중이 높다.

1) 주요 부류별 수출구조

한중 농산물 교역가운데 중국은 주로 한국에 원료 및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한국은 중국에 주로 농산물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표Ⅳ-6에서와 같이 당류(자당) 수출 비중이 제일 크다. 그 다음으로는 주류, 커피류, 소스류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화훼류인 경우 1995년에는 거의 수출이 거의 없었지만 2002년에는 4,665천 달러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표Ⅳ-6>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농 산 물	44,893	39,021	37,854	58,964	68,395	95,633
● 곡류	351	1,018	1,823	2,828	2,330	1,200
● 채소류	1,132	1,168	1,845	3,831	3,468	4,838
● 과실류	292	1,191	1,123	1,262	2,253	1,758
● 화훼류	1	234	2,291	2,434	2,984	4,665
● 인삼류	1,986	282	1,308	2,555	3,079	3,290
● 한약재	322	105	143	211	312	353
● 당류	14,959	10,348	9,430	12,240	19,947	21,398
● 면류	557	2,281	1,621	3,559	4,308	4,707
● 커피류	165	777	838	1,434	1,364	11,375
● 주류	645	9,637	5,565	8,435	9,655	11,437
● 과자류	5,233	1,587	2,357	6,440	5,880	7,393
● 차류	-	-	-	25	127	1,165
● 코코아류	262	725	689	119	175	987
● 소오스류	571	992	2,008	3,363	4,506	10,464
● 식물성유지	17	2,899	950	1,186	727	1,602

자료 : KATI, 수출입통계(1995~2002년)

2) 주요 품목별 수출구조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중국 수출현황을 보면 표Ⅳ-7과 같다. 전체 농산물 가운데서 자당 수출액은 21,145천 달러로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2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혼합 조미료, 위스키, 난초, 라면, 채소종자 등 순이다. 이들 품목별 수출액은 금액상으로 볼 때, 현재는 미미하지만 농산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의 소득 및 소비구조와 연계하여 목표시장을 정하여 농산물 수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공식품의 중국내 소비계층은 현지인이 아닌 주로 소수의 교민, 유학생, 조선족 교포에 의존하는 특성상 수출확대에 취약하다.

둘째, 가공식품은 단일품목의 컨테이너 규모 미달로 인하여 소량 다품종의 형태로 혼합되어 운송되며, 홍삼인 경우 일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되고 있다. 소량 다 품목 형태의 수출은 업무를 복잡하게 하며 라벨 작업 등 원가상승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셋째, 수출 유망 품목들은 일부분은 현지 투자에 의한 생산을 진행한다. 이럴 경우 업체의 외화 취득효과 있으나 직접적인 수출감소와 현지인 생산 증가 및 기술제고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현지투자 생산 현황을 볼 때 가공식품인 경우 라면, 과자·빵, 김치, 고추장·고추 가루 등이 있으면 신선품인 경우에는 과실(사과·배), 화훼(양란·선인장) 등이 있다.

넷째, 주요한 수출경로는 인천·부산에서 중국의 소비지역이 가까운 동부연안의 산둥성·요녕성의 일부 항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둥·복건성은 아직 진출이 미미하다. 수출경로를 볼 때, 인천·부산에서 청도·연태·위해·대련을 거쳐서 북경·심양·상해·광주 등지로 운송된다.

<표IV-7> 한국 농산물 품목별 대 중국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 채소류	1,132	1,168	1,845	3,831	3,468	4,838
- 김치	-	-	-	241	30	42
- 채소종자	851	1,132	1,690	2,964	2,242	3,039
- 토마토	14	14	13	-	76	461
● 과일류	292	1,191	1,123	1,262	2,253	1,758
- 배	-	9	3	4	141	97
- 복숭아	13	32	-	-	23	131
● 화훼류	1	234	2,291	2,434	2,984	4,665
- 난초	-	116	319	1,233	2,158	3,281
- 양란	-	7	566	431	583	325
- 선인장	1	80	385	466	66	204
● 소오스류	571	992	2,008	3,363	4,506	10,464
- 간장	154	228	514	1,166	780	1,265
- 된장	43	40	12	70	226	578
- 고추장	70	77	238	333	603	446
- 혼합 조미료	213	519	852	876	1,123	6,493
● 자당	14,792	10,253	9,159	12,041	19,667	21,145
● 라면	448	1,368	1,171	2,229	2,931	3,262
● 홍삼	1,826	109	1,061	2,458	2,497	2,598
● 주류	645	9,637	5,565	8,435	9,655	11,437
- 위스키	306	4,483	1,014	1,891	2,025	4,429
- 알콜합성 조제품	-	4,712	4,019	5,263	5,855	4,239
- 맥주	187	288	163	723	1074	1,225
- 소주	116	94	338	430	537	990

자료 : KATI, 수출입통계(1995~2002년)

3) 한국 농산물의 중국내 유통·소비실태 분석

중국에 있어서 농산물 수입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2002년에 비하여 2003년 10월까지의 농산물 수입액은 152.8억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6.1% 증가되었다¹⁸⁾.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국내 농업자원 구조와 국제시장 정보와 밀접한 연계가 있다.

위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알다시피 중국은 생산력 수준의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과 수확 후 처리, 가공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져있어 다양한 국내 수요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도 많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슷한 소비습관들을 갖고 있어 중국내 진출이 유리하다.

(1) 유통실태

한국 농산물은 중국내에서 까르푸, 저스코 등 현지의 대형 할인매장이나 우의상점 등 고급 백화점 진출은 미미하고 영세규모의 식품점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대형매장에서는 한국 대기업이 현지 합작공장을 설립·생산한 면류, 과자·빵류 등이 있으며 직접 수입한 제품은 일정한 공간의 간이 자판에서 소량 다품목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 진출이 부진한 까닭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식품 유통구조상 막대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고 진출시 성공 가능성에 비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매장에서의 판매실태를 볼 때 북경, 상해, 청도의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소규모 물량이 납품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중 상해의 까르푸 입점·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식품은 북경의 연사백화점, 청도의 JUSCO·까르푸, 상해의 까르푸·우의상점 등과 무한, 남경,

18) 중국 농산물 구조 : 수출과 수입의 큰 폭 증가,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農業行業分會, 2003.

성도 까르푸에 납품되고 있다. 북경, 상해, 청도 및 북부지역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대형 할인매장이 아닌 교민과 교포대상의 소형 식품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수출유망 품목은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지명도 및 여건에 비해 시장개척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소비실태

수입업체에 의하면 한국 식품은 최근 중국인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로 소비 증가 추세이나 주류시장 진출의 한계로 아직까지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동일제품일지라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한글로 쓰여진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청도·북경·상해에 있는 한국 식품 수입업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3) 수출확대 애로 사항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이 대 중국 수출에 장애요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중국인 주류시장 개척이 미흡

수출확대의 관건인 중국인 시장개척에 필요한 대형매장 입점이 미흡하고 소규모의 한인시장 유통에만 한정되고 있다. 대형매장 입점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중국 유통체계 특성상의 외상거래에 의한 막대한 운영자금 소요로 인하여 영세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업체의 한계성이 내재하고 있다.

②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미흡

한국 식품진출이 중국인 주류시장으로의 진출이 아직 활발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최대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이 부진하다. 한국 국가 이미지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막연한 선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홍보가 이루

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식품 인지도가 아직 낮다.

③ 근본적인 가격경쟁력에서 열세

신선품목은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 우위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단기간내 중국 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유기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보통 농산물 보다 2~3배 고가이나 한국 농산물에 비해서는 현저한 저가이다.

④ 현지 생산품과의 경쟁으로 직접 수출영향

김치가 한국 식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현지 생산품과의 가격 경쟁 열위로 시장개척 애로 및 일본시장에서의 경합 증대가 전망된다. 과자류, 면류, 육가공품, 화훼류 등 수출증가에 영향이 큰 품목의 현지 투자생산 증가로 한국 농산물의 직접 수출에는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⑤ 유통채널 구축의 미비

한국 농산물의 진출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한국계 유통채널 및 한국 식품 전문 수입업체의 부족과 역량이 미흡하다. 편법무역의 성행과 유통단계 및 불명확한 유통비용 등으로 한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

V.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 대응방안

중국의 급부상은 인접국인 한국에 큰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면밀한 실태 분석의 기반위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웃국가로 중국을 받아들이고 인접국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한국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문화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됨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인 소비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잘 활용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무역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기업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중 농산물 무역의 더욱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1. 중국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무역 전망¹⁹⁾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발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부문과 일부 제조업 부문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제·사회적 마찰 등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시장접근 물량의 허용 및 확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감축(또는 철폐)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격차 확대, 농업 부문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의 구조조정,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 필요성 증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육류와 노동 집약적 과일류 및 채소류 부문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며 이들 분야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 이인우,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농협조사부, 2002, p13~15

중국 경제와 농업부문의 이와 같은 변화는 한·중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국제 분업화의 추세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원료 및 신선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료 곡물 등 대규모 농산물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쌀, 두류, 양념 채소류 등 한국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대 중국 수입은 최소시장 접근 물량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밖에 화훼류, 한약재, 기타 소량 다 품목 형태의 농산물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 균형으로 발전하기 이전까지 양국간의 무역 분쟁, 특히 농산물 무역 관련 분쟁은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 불균형 현상으로 양국간의 무역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 양국간의 무역 마찰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셋째, 양국간의 동식물 검역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의 대 한국 검역제한 조치 완화 압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축산물, 과일류, 신선 채소류 등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수입 증가 여부가 걸린 문제이며, 중국은 옥수수 등 대규모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경우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농업구조조정으로 생산이 증가할 과일류와 채소류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해서 동식물 검역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축산물과 과일류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을 위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과일류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2.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과 수출가능성 분석

1)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분석

무한경쟁시대에서 한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상대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한·중 양국에 있어서 오로지 경쟁만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불리하다. 양국은 서로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기에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 전략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한 요소들은 최소화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농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대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V-1 참조). 한국농업의 강점은 자연조건과 농업인력의 우수성을 들 수 있으며, 영세농 구조와 고비용 체제는 커다란 약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내수시장의 성장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확대, 그리고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농산물과의 경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1> 한국 농업의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 우수한 농업인력과 도전 정신 *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 고지가, 고임금 등 높은 비용 구조 * 유통·물류 시스템의 비효율성 *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증가와 식품소비 고급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 가능성 * 일본,중국,동남아 등 수출시장 확대 * 첨단기술 개발과 농업적 활용의 가능성 * 규모화, 전문화된 경영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특히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 * 일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 * WTO의 국경보호 조치 삭감 요구

자료 : 강정일 외, 한·중·일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105

한국 농산물의 판매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분석하면 표V-2와 같다. 한국 농산물의 중국내 판매시장은 현재 주 소비층인 한인시장과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인 주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농산물은 주류시장인 중국인 시장에서 고소득층 대상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단기적인 시장개척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표V-2> 한국 농산물 경쟁력 분석

구 분	한인시장	중국인 시장
시장 특성	시장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선족 중심의 영세상이 편법무역을 통한 가격 경쟁 심화로 진출에 애로	시장영역이 거대하고 동부연안 대도시 부유층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구매가 왕성함. 가격보다 품질을 고려한 구매성향
가 격 경쟁력	정상적인 무역거래 및 조선족 영세상과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음	부유층 대상의 판매는 가격경쟁이 충분하나 기 진출국가(미·일)과 경쟁 불리
제 품 인지도	한국 농산물에 대한 습관적 소비로 인지도는 높으나 고가라는 인식이 강함	한국 농산물의 진출 및 홍보 미흡으로 제품인지도는 거의 없음
성 장 잠재력	한정된 시장규모, 비정상적인 제품 공급, 왜곡된 가격구조로 성장 한계성 내재	한국 농산물 구매가능 소비자 대상의 마케팅 추진시 성장잠재력은 뛰어남

자료 : 대중국 농산물 수출여건 및 확대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p35

2) 수출 가능성 분석

한국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중국내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중국의 틈새 시장을 이용하면 대 중국 수출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농산물 무역에서 종자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둘째, 중국 농산물 생산현황에서 알다시피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전반적인 수급균형이 이루어졌지만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은 아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형성되었다. 중국 13억 인구가운데서 5%에 가까운 고소득층을 가격보다 질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서 주요한 시장으로 급부상되었다.

넷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곡물 소비가 줄어들고 과일소비 특히 과일주스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채소가운데서도 신선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편의성을 선호하고 있다.

다섯째, 2001년 말 WTO 가입으로 인하여 2005년까지 농산물의 평균관세를 15.5%로 인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들도 관세인하가 되어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예를 들면 자당과 같은 경우 30%에서 20%로 인하될 것이며 위스키·와인 등도 2004년까지 관세율을 대폭 감소할 것이다.

여섯째, 2002년 월드컵과 최근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국가 이미지가 상승되고 있다.

일곱째, 중국 국민의 경제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으로의 중국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수출전략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1) 채소류

① 채소종자

한국산 채소종자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농업구조조정과 수출을 위해 품질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채소종자는 대부분이 한국에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한국산 배추와 무의 채소종자는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아직 동 품종에 대하여 육종하지 못하였으며 가격면에서 일본종자에 비해 낮으면서, 품질면에서는 일본과 비슷하고 기타 국가들과는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재배하는 품종의 종자수출을 위주로 하

였으나 중국의 다양한 기후와 소비채소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시장확대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품종과 함께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재배되는 채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내수 판매용 종자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② 김치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치소비는 매장에서 구매하기보다 한국식당과 중국 동포들의 식당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족 교포들이 북경, 상해 등지에서 운영하는 양고기집을 통해 중국인에게 소개되고 있다. 김치 소비 초기에는 김치의 매운 맛을 적응하기 힘들어하나 최근에는 김치의 매운 맛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 사스때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으면 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강해졌다. 사스를 계기로 더욱 많이 사람들이 김치를 접하게 되었으며 한국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김치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비록 현지에서 제조되는 김치는 값도 싸고 맛도 한국 김치와 맛도 비슷하지만 한국산 김치는 한번 맛을 들이면 지속적인 애호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산 김치는 맛·포장·위생 관리면에서 중국 현지산과 차별화 되었다.

향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광고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김치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한국산 김치의 인지도와 소비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람회, 판촉전 등에 김치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입맛들이기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중국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 대표음식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식당을 대상을 한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 바람을 적극 활용한 정부차원의 TV, 신문광고 등으로 김치소비의 붐을 조성할 수도 있다.

(2) 과일류

과일류 수출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수요에 맞춰 고품질 과일류의 수출은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산 배와 같은 품종은 아직 중국에 없다. 동시에 과즙음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과즙음료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초기의 오렌지, 사과 주스 등 단순한 품종에서 키위, 포도, 복숭아, 파인애플, 딸기, 배 등 과일에서부터 열대과일, 야생 산열매까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과즙음료 소비량은 세계평균 소비량의 1/7에도 못 미치는 현실로 향후 소득증대에 따라 시장확대 가능성은 무궁할 것이다. 수입산 과즙음료는 중국산에 비해 매우 고가로 외국인 거주지역이나 고급 상점에서 판매되며 소비지역도 소득이 높은 연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산 과즙음료는 위해, 청도 지역으로 다른 제품과 혼적되어 수입된 후 한국 식품전문 도매상을 통하여 한국식당, 교민, 한국식품 전문점으로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 과즙음료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의 점유율로 볼 때 2001년 브라질은 45.6%, 미국은 14.5%, 한국은 1.1%로 매우 미미하다. 중국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차별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현지시장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배음료, 오렌지 과립음료 등 현지인에게 독특한 제품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대형 매장의 판매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화훼류

① 양란

중국의 양란은 초기단계로 생산량이 적고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품질이 좋은 한국산, 대만산 양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란은 주요 유통 품목인 관엽식물과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양란만의 독립적인 유통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화훼소비는 연중 소비는 아직 활성화

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비의 대부분이 춘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산 심비디움 수입도 춘절 전 11~1월에 80~90%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중국인의 소득증가에 따라 연중 소비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산 심비디움인 경우 경기화훼의 현지법인 설립으로 중국에서 소비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국산 심비디움 수입은 경기화훼가 30%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기타 다수업체가 분할하고 있다. 한국산 심비디움은 중국 시장석권이 가능한데 과당경쟁으로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도 수출하는 경가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공급가격은 상승되고 중국 현지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의 일시 홍수 출하에 따른 품위 저급품의 수출을 방지해야 하며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화훼 박람회에 참가 또는 개인업체 참가 지원을 통하여 한국산 화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② 선인장

중국에서 선인장 주 재배지역은 복건성의 장주 및 광둥성 광주시 일대의 화훼세계가 주산지로서 분류될 수 있다. 선인장 품목별로는 점목선인장이 70%, 일반선인장이 30%를 점유하며 점목 활착용은 30% 정도이다.

중국에서 선인장 소비는 1999~2001년에는 선인장이 중국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희귀식물이라는 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선인장에 대한 기호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선인장은 양란과 같이 춘절을 중심으로 2~3개월에 선물용으로 집중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의 계절성이 크다. 한국산 선인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품질 및 포장은 중국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현지 상인들의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다.

선인장의 중국 수출에 있어서 고품질·고가 상품전략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시장은 소비계층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개념에서 싸구려 시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어렵다. 미국산 금호선인장의 경우는 높

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선인장 상품 중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다. 저가 제품은 이미 중국 자체에서 생산한 것만으로도 과잉상태이다. 동시에 중국제품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대도시 소비자에 별도의 한국 화훼 직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가공 농산물

① 인삼

중국의 인삼소비는 주로 광둥성, 복건성, 강서성, 절강성 등 남방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광주, 심천, 상해, 주해 등 남방 고소득지역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려삼은 병후 회복이나 생명 위급시에 주효하고 서양삼은 평상시에 보신용으로 먹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산 인삼가운데서 6년근 홍삼이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유통되고 있으며 고가인 까닭에 고소득층에만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홍삼은 중국산에 비해 10배정도의 고가이며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수입의약품 등록을 해야 수입이 가능하나 등록절차가 복잡 등의 사유로 등록이 되지 않아 정식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출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산 홍삼·백삼의 수출은 수입의약품 등록이 관건이다. 인삼소비는 주로 춘절 전후에 이루어지며 총 소비의 40%에 가깝다.

② 라면

최근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고가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단가 3元이상의 고가 제품이 라면 총 소비량의 거의 1/3을 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에서 유통되는 라면 제품 중 가격이 높은 것은 한국산 “농심” 계열 라면과 일본산 “日清”계열 라면인데 주요 소비층은 대사관, 외국상사 및 합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 화이트 칼라층으로 소비층은 높지 않지만 이들 라면이 보통 라면 가격보다 1-4배 비싸지만 품질, 독특한 맛과 계열화된 제품 등으로 인하여 라면시장에서 안정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고급라면시장의 급성장, 농촌시장으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상당한 시장개척 여지가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입맛이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한국적 매운 맛을 표방하고 고급라면 생산위주인 한국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한국의 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 및 성별로 농업적 성격이 다양하므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업부문의 고급인력과 교육 훈련 체계를 경쟁 상대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중국은 농업 입지적 유리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한국의 농업생산과 가공산업의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교역 관련 분쟁 해결 등 교역 현안을 협의하고 농업기술과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며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한중간 농업분야 협력기구의 설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도 있다.

(1) 무역구조 조정을 통하여 무역마찰 감소

무역마찰은 양국 무역관계 발전에 아주 불리하다. 매년 60여 억 달러에 달하는 중·한 무역적자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과는 농산물 수출에서

출로를 찾게끔 만들어 채소류 농산물이 대량적으로 한국에 수입됨으로 한국정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양국은 정부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어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곡물류 수출 확대를 통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기타 나라들의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농업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품종은 될수록 적게 수출함으로 수출구조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무역은 계속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증가시켜 무역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무역마찰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립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 균형으로 발전되기 이전까지 양국간의 무역분쟁, 특히 농산물 무역 관련 분쟁은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무역마찰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립이 중요하다.

1999년, 한국은 중국 마늘 수입량의 급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산둥지역 등 마늘 수출을 하는 농가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하여 한국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잠시 정지하였다. 비록 이러한 무역분쟁은 양국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농산물 무역마찰은 한중 양국 농업생산에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제품이 상호 교체될 수 있게 되어 농산물 무역에서 농업생산자사이의 경쟁을 초래한다. 양국은 상호 협상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먼저 양국은 농산물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체결함으로 양국은 무역에 있어서 세계무역조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중 양국은 생산과 시장정보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여 주요한 농산물의 무역수량에 대한 협의안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각자의 농업 생산을 지도함으로 생산에 대한 맹목성을 감소하고 생산자들에게 무역문제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중국 수출기업들은 한국 시장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수출제품 구조

를 조절하여 제품의 과학기술 함량과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동북아 식량비축 기구 설립

최근 한중 농업교류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은 농업방면에서의 공존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였다. 한중일 삼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갖고 있기에 동북아 농업의 공동한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은 저 관세율과 수입쿼터 확대·국영무역 감소 등 조치로 인하여 식량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한국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다시피 중국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면 한국과 같은 식량 수입국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국은 상호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식량비축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각국에서는 적절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불시의 사태에 상호 지원하는 집단적인 수급 조절방식으로 지역 시장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축은 먼저 쌀을 위주로 한 다음 상황에 따라 소맥류와 두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²⁰⁾.

(4) 관광 인프라 정비와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에 잘 알려진 대 한국 중국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방문객수는 1999년의 317천명에서 2000년의 443천명, 2001년의 482천명으로 3년 사이에 8.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 중한 농산물 무역 협력현황과 전망,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農業行業分會, 2003. 12. 28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신규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 및 해외홍보 강화, 음식·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확충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좀더 한국을 알고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여 한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5) 상호 보완적인 농업협력강화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운송비용이 적는데 이는 농업방면에서의 상호 협력과 농산물 무역 발전에 유리하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서로 다른 지역과 성시는 기후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서로 다르며 비교적 풍부한 농업토지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육종·가공·유통기술 및 자금 등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농업방면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국내 시장에서 부족한 농산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위생표준도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종자·식품가공기계·농기계 등의 중국 수출은 증가될 것이다. 한중 양국이 농업방면에서의 상호 협력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서로의 우세를 이용할 수 있다.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1) 목표시장 지향적 수출전략 수립

중국 13억 인구가운데서 5% 이상이 부유층에 속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소득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소득 차이로 인하여 계층별 소비성향도 다르다(표V-3).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할 때 한국은 5%에 속한 부유층을 목표

시장으로 정해서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한국 농산물은 현재 중국의 소득수준으로 감안할 때 고가에 속하므로 상해, 북경,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제고로 한국 농산물 소비층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볼 때 상해, 광주, 심천, 북경 등 대도시가 시장여건상 마케팅에 유리하다.

<표 V-3> 계층별 소비성향

구 분	분포 비율	거주지역	사회적 지위	제 품 선택기준	경쟁 요소	주요 구매처	시장진입 가능성	전략관점
부유층	5%	동부연안, 대도시중심	특권 계층	품 질> 디자인> 가격	품질> 디자인	대 형 백화점	높 음	단기공략 대상
중산층	15~20%	동부연안, 중부내륙의 대도시외곽	중류층	가격> 품질> 디자인	가격> 품질	대 형 할인점	가능성 있음	중기적 공략대상
빈곤층	60~70%	서부지역, 대도시 빈민지역	소외 계층	가격	가격	재래시장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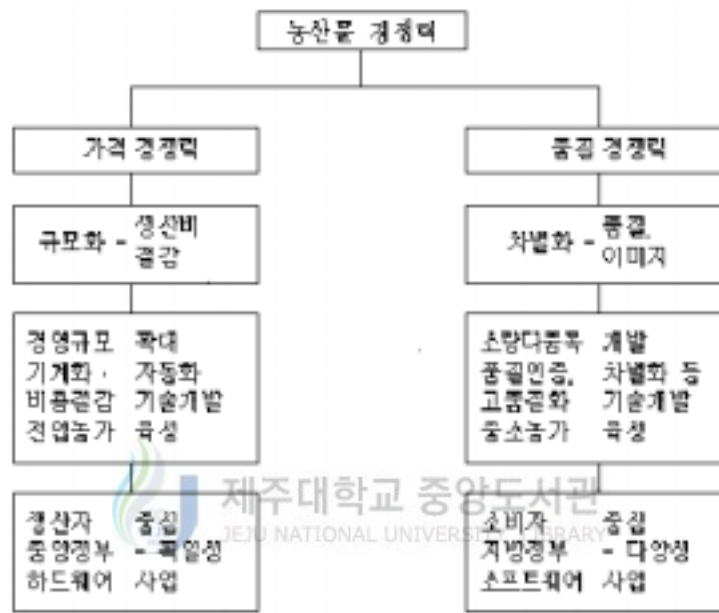
자료 :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여건 및 확대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p19

(2) 고품질로 국제화에 대응

나날이 향상되는 생활수준으로 인하여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식품소비도 色, 香, 味뿐만 아니라 소비의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표 V-3에서와 같이 중국의 목표시장으로 한 부유층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농산물이 중국시장에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고품질로 이겨야 한다. 부유층의 기호는 맞는 제품을 수출함과 동시에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 되게 해야 한다. 한국은 품질 경쟁

력 강화와 결합되는 비용절감 시책을 통하여 중국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그림 V-1 참조)

<그림 V-1> 한국 농산물 경쟁력 제고의 방향과 수단



자료 : 강정일 외,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114

(3) 한족(漢族) 主流시장 개척

한국 농산물이 중국내 소비는 주로 재중한국인과 교포들이었으며 주류시장인 한족 소비가 극소수였다. 아직까지 한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주로 한국식당과 교포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들을 접하게 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약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중한국인 시장과 조선족 동포 시장은 한국 농산물의 초기 시장개척에 필요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으며 동시에 초기 수요자로서 중요한 역할

들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주요 공략대상인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 대도시를 위주로 한 교민·교포시장을 기반으로 한족주류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교민, 교포 대상의 소형 영세점을 위주로 판매를 진행하였기에 획기적인 확대는 무리하겠지만 한인주류시장 개척을 위하여 한국 농산물 중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여 진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표 V-4> 중국 도시별 다국적 할인매장 현황

업 체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청두	톈진	우한
계	14	10	11	2	2	2
까르푸	6	4	4	1	2	2
월마트	-	-	7	-	-	-
매크로	-	2	-	-	-	-
로터스	4	-	-	-	-	-
프라이스마트	-	4	-	1	-	-
大潤發	3	-	-	-	-	-
E-MART	1	-	-	-	-	-

자료 :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여건 및 확대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p17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전제조건으로 입점비, 제품 등록비, 매출 리베이트 등 자금 부담이 과다하므로 기존에 이미 진출된 한인 수입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진입비용도 절감되고 위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진입조건이 까다롭고 비용이 과다한 단점은 있으나 한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중국 까르푸는 상해, 북경, 천진, 심천 등 15개 지역에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한식 무역유한공사는 상해 까르푸에 입점한 후 전국 20여 까르푸 지점에 납품이 모두 성사됨으로 한국 농산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 농산물은 진출초기에는 광범위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에 대형유통업체에서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확대와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판촉행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도 다변화함으로써 더욱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지역특성과 韓流열풍을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

중국은 국토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소득여건도 지역별 편차가 커 단일한 시장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성이 두드러진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시장은 식문화와 기호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농산물은 북경, 상해, 광주 등 지역의 특성과 농산물 품목에 따라 TV 광고, 신문광고, 버스 광고, 대형 유통업체 쇼핑카드 광고 등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한 홍보들을 추진해야 한다.

광둥성 지역은 한국산 진출품목이 과자류, 음료 등 소수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지도가 매우 낮다. 타 지역에 비하여 버스광고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유용한 홍보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광둥성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를 감안할 때 IMF 경제위기 극복, 월드컵 4강 진출의 정신 등을 소재로 “한국인의 정신력”을 홍보 테마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경제위기사 금 모으기에 대한 감동이 많고 “정신”이 있는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해지역은 한국 농산물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인지도가 높고 잠재력이 가장 우수하다. 상해에서는 한인 수입·유통업체의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대형매장 진출과 한족 주류시장이 개척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김치에 대한 TV, 빌보드, 버스 노선을 감안한 버스광고 등 비용과 효율을 감안한 특화된 광고가 유리하다.

북경은 행정수도로 한국인 거주자가 많아 식당, 교민·교포시장을 통한 인지도 매우 높다. 홍보수단으로는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광고와 식당에 홍보 포스터 배포 및 카트 광고와 같은 맞춤형 광고가 유리할 것이다.

② 한류열풍

최근 중국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은 한국 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들이닥친 “문화 한류열풍”을 이용하여 인기텔런트를 이용한 광고 제작,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한류열풍뿐만 아니라 한국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더욱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게 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좋은 한국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5) 박람회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다른 외국우수 상품과의 비교분석, 시장정보 수집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기존 박람회 참가지역은 북경, 상해, 광주로서 이외의 신규지역에 대한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한국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6) 현지화를 지향하는 투자진출을 통한 무역확대가 필요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변화된 지금 무역만으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촌화 시대에서의 승자는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비교우위의 경영자원을 누가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농산물은 가격면에서 우세가 없기에 일부 품목들은 선정하여 중국에서 현지화하여 시장 점유율과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VI. 요약 및 결론

최근 세계경제는 하나로 되어 가고 있다. 우리만이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세계 경쟁은 Zero-Sum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다.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소비습관도 비슷하고 농업생산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서로 경쟁이나 대체 관계보다는 윈-윈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러한 측면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중 무역에서 한국은 중국에 주로 가공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원료 농산물 혹은 반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서 협력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 한국 농산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에 대한 분석과 중국 농산물 시장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차원에서의 상호 협력하여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전략으로는 첫째, 상해·광주·심천·북경 등 대도시의 부유층을 목표시장으로 정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고품질로 국제화에 대응하여 현지 제품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를 위주로 한 교민·교포시장을 기반으로 한족 주류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전략과 최근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박람회 등을 통하여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바이어

를 발굴하고 다른 외국 우수 상품과의 비교분석, 시장정보 수집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농산물은 가격 면에서 우세가 없기에 일부 품목들은 선정하여 현지화를 지향하는 투자진출을 통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한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중국을 한국 농산물의 거대한 수출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한·중 양국간의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가까운 소비 습관, 그리고 중국 농산물 시장 여건의 변화가운데서 유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하여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程國強, 「WTO 農業規則与中國農業發展」, 中國經濟出版社, 2001年
- 전창곤 외,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임정빈, 「우리 나라 농산물 무역의 특징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 중국의 WTO가입 영향을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 2002
- 歷爲民,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과 전망」, 제3회 한·중국제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2003
- 서종혁 외,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김명원, 「WTO 하의 한·중 농산물 교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2001
- 오용석,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 중국 농산물 교역환경의 변화와 대응」, 중국연구, 2001
- 강정일 외, 「한·중·일 농업발전전망과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임정빈,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농산물 무역변화 전망」, 세계농업정보, 2001
- 김병률, 「농산물의 수입동향과 경쟁력 강화방향」, 농촌진흥청, 2002
- 黃季昆, 「WTO가입 후 중국농업종합개발에 대한 대책연구」, 중국과학원농업정책연구중심, 2001
- 龍永圖, 「WTO 가입과 농산품시장개방」, 중국대외경제무역출판사, 1999
- 하서현 외, 「농업경제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인우,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농협조사부, 2002
- 「대 중국 농산물 수출여건 및 확대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 「中國統計年監」, 中國統計出版社, 歷年各期
- 「중국 농수산물무역 핸드북」,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 「중국 농업통계자료」, 중국농업출판사, 2000

부 표

<부표-1>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



자료 : 전창곤 외,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34

<부표-2> 주요 省·市別 경제현황 (2001년)

구 분	면적 (km ²)	인구 (만명)	GDP (億元)	1인당GDP (元)
上海市	6,341	1,614	4,951	37,382
北京市	16,808	1,383	2,846	25,523
天津市	11,305	1,004	1,840	20,154
重慶市	82,400	3,097	1,750	5,654
浙江省	102,000	4,613	6,748	14,655
廣東省	186,000	7,783	10,648	13,730
福建省	120,000	3,440	4,254	12,362
江蘇省	102,600	7,355	9,512	12,922
寧夏省	145,700	563	298	5,340
山東省	156,700	9,041	9,438	10,465
黑龍江省	453,800	3,811	3,561	9,349
河北省	187,700	6,699	5,578	8,362
新疆省	1,600,000	1,876	1,485	7,913
湖北省	185,900	5,975	4,662	7,813
吉林省	187,400	2,691	2,032	7,640
海南省	33,900	796	546	7,135
湖南省	210,000	6,596	3,983	6,054
山西省	156,300	3,272	1,780	5,460
河南省	167,000	9,555	5,640	5,924
青海省	737,000	523	301	5,735
安徽省	139,700	6,328	2,390	5,221
江西省	167,000	4,186	2,176	5,221
寧夏	66,400	563	298	5,340
雲南省	394,000	4,287	2,075	4,866
四川省	560,000	8,640	4,422	5,250
陝西省	205,600	3,659	1,844	5,024
甘肅省	454,300	2,575	1,073	4,163
貴州省	176,100	3,799	1,085	2,895
西藏自治區	1,228,400	263	139	5,307
廣西自治區	236,200	4,788	2,231	4,668
內蒙古	1,183,000	2,377	1,546	6,463

자료: 中國統計年鑒, 중국통계출판사, 2002

<부표-3> 국민 소비 추이

(단위 : 元)

年度 /지역	전 국	농 촌	
		농 촌	도 시
2000	3,397	-	-
2001	3,611	-	-
北 京	8,197	3,831	10,150
天 津	6,802	3,736	8,979
河 北	2,785	1,967	6,102
山 西	2,232	1,331	3,907
內 蒙 古	2,806	1,584	4,407
遼 寧	4,789	2,540	7,366
吉 林	3,651	1,935	5,813
黑 龍 江	4,029	1,823	6,616
上 海	12,562	6,923	14,447
江 蘇	4,322	2,867	7,267
浙 江	4,772	3,434	9,459
安 徽	2,739	1,985	5,806
福 建	4,611	3,901	7,247
江 西	2,500	1,801	4,845
山 東	3,751	2,555	6,923
河 南	2,385	1,699	5,358
湖 北	3,183	1,916	6,442
湖 南	2,845	2,037	5,974
廣 東	5,038	2,882	9,730
廣 西	2,247	1,519	5,620
海 南	2,961	2,230	5,033
重 慶	2,642	1,491	6,766
四 川	2,466	1,750	5,535
貴 州	1,631	1,137	4,529
雲 南	2,192	1,646	5,137
西 藏	1,939	1,223	4,992
陝 西	2,150	1,293	4,938
甘 肅	1,839	1,054	5,064
青 海	2,443	1,347	5,063
寧 夏	2,384	1,357	4,909
新 疆	2,882	1,427	5,668

자료: 中國統計年鑒, 중국통계출판사, 2002

<부표-4> 국민 소득 추이

年 度	農村일인당평균수입		都市일인당평균수입	
	元	지 수 (1978=100)	元	지 수 (1978=100)
1990	686.3	311.2	1,510.2	198.1
1991	708.6	317.4	1,700.6	212.4
1992	784.0	336.2	2,026.6	232.9
1993	921.6	346.9	2,577.4	255.1
1994	1,221.0	364.4	3,496.2	276.8
1995	1,577.7	383.7	4,283.0	290.3
1996	1,926.1	418.2	4,838.9	301.6
1997	2,090.1	437.4	5,160.3	311.9
1998	2,162.0	456.2	5,425.1	329.9
1999	2,210.3	473.5	5,854.0	360.6
2000	2,253.4	483.5	6,280.0	383.7
2001	2,366.4	503.8	6,859.6	416.3

자료: 中國統計年鑒, 중국통계출판사, 2002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수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미흡한 저에게 세심한 학문적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 강지용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을 꼼꼼히 정성스럽게 다듬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강경선 교수님, 강동일 교수님, 그리고 학위과정 중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현공남 교수님, 유명봉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무 원장님, 최용규 원장님, 이병기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홍수 선생님, 김정선 선생님, 홍권춘 선생님, 최애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용기를 준 리금 언니,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조언을 준 강팽철 선배님과 허정욱 선배님, 논문을 쓰는데 편안하게 해 준 강정금 조교선생님,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힘이 된 농생대 조교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기쁨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부모님과 함께 논문완성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